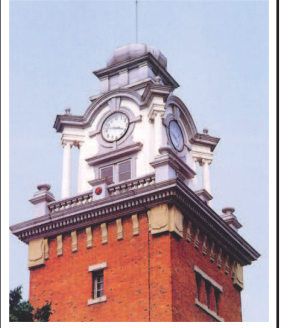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2024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51권 2호

5501 Merchants View SQ, #810, Haymarket, VA 20169
Tel: (516) 365-5500

발행인: 田璟培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盧英一 徐亮 羅斗變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皙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남가주 서울 의대 신년 하례식 및 총회

남가주 서울의대 동창회에서는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신년 하례식 및 총회가 아로마 센터 5층 연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는 90여 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하였고, 동창 모두가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이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그동안 COVID로 몇 년 동안 모임이 중단된 후 다시 모인 이 모임에서, 새 이사장으로 김성환(71) 동문, 회장 김자성(85) 동문, 재무 안상훈(94) 동문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이번 신년 하례식에는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인 전경배(75) 동문의 축사와 미주 서울대학교 총 동창회장 이상강 동문(79, 70년 입학)의 축사도 있었다. 1부 신년 하례식 끝에는 나누섭(73) 동문의 전체 기념촬영이 있었고, 2부에서는 노래와 춤 등 흥겨운 시간을 가지며 동문들은 다시 한번 끈끈한 우정을 다짐하였다.



이상강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장 버지니아 방문

이상강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장(2023-2025) 부부가 2024년 4월 6일에 버지니아 브레이크 연회장에서 열린 환영회에 참석했다.

인사차 방문한 이 회장은 1970년 의예과에 입학(안우성 동문), 본과 졸업은 1979년(백승원 동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군인 복무를 하게 되어 입대 28사단에서 끝내고 1979년 도미한 이 회장은 인턴과 pulmonary medicine training을 이수하고 전문의로서 35년간 진료하다가 Heart land인 Oklohoma에서 은퇴 후 이사하여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다. 뉴욕 지역 동창회 방문에 이어 워싱턴 방문이 그의 두 번째 행보이다.

이 회장은 6개의 중부 주가 포함된 지역의 서울대 동창회장을 역임 했으며, 평소애 장학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의 임기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다. 사진: 좌로부터 서윤석(68) 이상강(현 회장) 오인환(전 회장) /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임원들



한규섭 동창회장님 귀하

작금에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린 의료행정 분란에 처하여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모교의 동창회 임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비슷하게 필수 전공과목의 분배에 불균형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고 양심적인 의료인과 정부가 합리적으로 타협하여 단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결론이 모두에게 즉 의료인, 정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하여 좋게 맺어지기 바랍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 의료시스템이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우수한 인재가 의료인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덕택으로 어려운 COVID-19 팬데믹도 극소수의 피해만 남기고 잘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의료 행정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의료보험 의료 수가의 조절과 모자라는 인력 문제를 지역적으로 또 단계적 증원을 바탕으로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어제 시작이 되었다는 의료인 대표와 정부와의 만남에서 쌍방이 허심탄회하게 타협하여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에 살지만 우리 미주 동창회는 이런 희망 사항을 한규섭 회장님께 전달합니다.

2024년 3월 24일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장단 일동,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회장 전경배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2024 주소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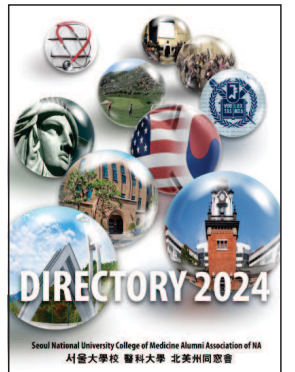
9년 만에 2024년 Directory를 만들었다. 전자 정보 시대의 변화와 미주 회원들의 고령화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감안했다. 지난 6개월간 시계탐에 홍보한 기준으로 12월 20일로 이 편집을 마감한다. 1973년 미주동창회가 설립된 후 거의 50년 만에 동창회 회칙을 처음 개정했다. 서인석, 한승신 두 By-laws Committee Chairs의 노고에 감사한다. 연혁은 서인석 43대 회장이 전처럼 2015년 이후 사항도 정리했다.

의료계의 제2세의 명단은 시계탐에 이미 여러 번 명시한 대로 희망자에 한하여 또 현 정보 유출 규제에 문제가 없도록 필수적인 내용만 정리했다. 또한 근래에 증가하는, 새로 가입하는 젊은 우리 동문들을 포함했다.

타계하는 동문이 속출하는 현실이다. 그 배우자들이 계속해서 동창회와 유대를 갖도록 부부의 이름을 희망자에 한하여 넣었다. 새 주소록은 현시점의 실용적인 동창회 활동에 중점을 둔 기록이다. 편집 후 인쇄는 제본에 손색이 없이 서울의 출판 회사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우송되어 올 것이다. 2024년 7월 초 (6월 중순경)까지 도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우리 북미주 동창회 후배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 책의 발간을 도와준 전경배 회장과 동창회 모든 임원들의 협조에 감사한다

표지 설명(노영일 68, 시카고): 우리 서울의대 미주 동창 회원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여정의 요소요소에서 잊지 못할 귀중한 추억들을 구슬에 담아 펴 놓아 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어려웠던 의학 공부, 미주에서의 고된 직업훈련, 이민생활, 미주사회에서의 적응과 성취, 그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구슬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껴 봅니다.



시계탐 창간 50주년 기념 책자(문집) 발간을 계획하면서

금년 7월이면 시계탐 창간 50주년이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시계탐은 미주에서 한국일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래된 신문입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정성을 기울인 2024년 주소록이 마무리되면 이어서 금년 내로 이 기념 책자(문집 7호)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행한 문집과는 달리 그림이나 사진도 포함할 것이며 기존 문집에서는 지난 5년간 시계탐에 실렸던 작품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더 광범위하게 50년으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작품 선정을 위하여

관련된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고하신 분의 작품도 포함될 것이며 시, 소설, 수필, 기행문, 농담 골목, 만화, 지역별 사진, 10문 10답, 박은경 위원의 젊은 동문들과의 대화 등 여러 학회 사진 등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7월과 10월에 발행되는 시계탐에 게재되는 원고들도 50주년 기념 문집에 수록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1월 30일을 원고 마감일로 정하고 편집과 인쇄를 하여서 내년 봄 학회에서는 책자가 완성, 전달될 것입니다. - 편집장 서윤석(68)

10문 10답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은 얼마를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가장 결혼생활 중에서 행복하셨을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임상을 하셨나요 전공은? 연구를 하셨나요?
4.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태안(67, 대뉴욕) 동문



1. 그때엔 ECFMG 시험 보고 미국 가는 것이 유행해서 졸업은 1967년, 공군 군의관 3년 제대 1970년 6월 말, 바로 7월부터 미국에서 인턴 시작. 그때는 1967년 동기 반 이상이 미국에 왔습니다.

정부에서 바꾸어준 200달러,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항상 가지고 싶었던 Asai Pentax Camera를 125달러 주고 통 크게 샀습니다.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보잉 747(PanAm)을 타고 왔습니다.

2. 오하이오 주 Columbus에서 인턴 (1970 -71) 하는 중에 뉴욕에서 Fine Arts Master 하고 Ohio State Univ.에 Ph.D 하러 온 여학생을 만나서 그 다음 해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던 사람)

미국 오기 전 어머니께서 “너는 서양 며느리는 안된다”해서 (미리 미국에 유학 온 저의 형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포기하신 모양) 맞선을 여러 번 보았지만, 맞선을 보아서 평생 배필을 만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저는 일찍 포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즐기는 모양새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화여고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우리 반 세 여학생 중 하나(고 안돈희), 또 자기 동생은 제 어린 삼촌하고 경기, 서울공대 동기동창, 또 고등학교 대학 때 저는 총무로 3가, 그 여학생은 총무로 2가에 살았다고 해서 처음 접촉하기가 쉬웠습니다.

1970년 저는 새로 산 차(에어컨이 있는 FORD LTD)로 힘든(?) 주말 그로서리 쇼핑을 도와주면서 그 집에서 점심은 대접받고, 눈치가 보였지만 몇 안 되는 유학생들과 같이 염치 불고하고 눈치가 보였지만 그냥 놀러와서 저녁까지 얻어 먹고 했습니다. 역시 무식하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더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말에 좋은 학교를 위해 집을 떠났으니(타향살이 시작), 저는 ‘원조 조기유학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3년 결혼 생활이 언제나 가장 행복했습니다만 같이 늙어가는 요즈음이 제일 행복합니다.

3. 자랄 때부터 항상 의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의대를 가려 했으나, 학적부에 빨간 줄이 커진 요주의 학생이어서 모든 대학에서 Reject! 전주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었는데 회유책으로 학생회 간부들만 일본 여행을 시킨 후(그때는 일본이 합방을 완성시키려 모든 조선 문화를 말살하던 시기) 전 학생들 앞에서 귀국 강연 도중 반 일본을 시사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를 본 교장이 갑자기 All Stop 시키고, 학생들 해산! 그 사건 후 아버님은 요주의 학생, 빨간 줄은 학적부에! (저희 조상들 중에 반골 사상이 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레지던트 3년 차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막바지 철수, “한국은 다음이다”라고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미루라고 해서, 한국 행은 당분간 포기, 그다음으로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Fellowship program apply & then accepted, 그러나 첫째 딸애가 출산하니 부모로서 책임감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개업이나 3-4년 할까 한 것이 오하이오에서 개인 정신과 개업을 32년하고, 64세인 2007년에 은퇴하고 오하이오에서 뉴저지 Fort Lee로 이사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 완전 풀타임으로 인생을 즐기는 놈이 되었습니다. 은퇴생활이 이렇게 핑크빛일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는 인턴 때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쉬운 과’를 하자고 해서 정신과를 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쉽기는커녕 인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개업으로써 일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엔 입원환자 1시까지, 오후엔 외래 5시까지, 그 후 병원에 다시 가서 다른 병동 환자 Consultation, 항상 스케줄보다 1시간 정도 밀리고, 밤에는 응급실에서 오는 그 많은 전화, ER을 통해서 밤에 입원하는 환자, On-Call은 그것대로 등등!

전공은 Adult Psychiatry 그리고 Geriatric Psychiatry를 했습니다.

4. 가장 힘들었던 때는, 정신과 1년 레지던트 때, 도저히 정신과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의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year Psychiatry Resident Syndrome” articles를 몇 개 읽은 후 그대로 정신과를 했는데,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지금 생각하니 요즘 살고 있는 자체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목적을 위해 앞만 보고 계속 달리다가, 옆구경도 할 걸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소위 ‘문화생활’도 좀 하는 것이 어떨까요?

5. 본과 4년 ECFMG 시험 준비하던 여름방학 때(1966년) 동아일보에 매일

광고하는 “종 5 댄”(종로 5가 댄스 교습소)를 항상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다른 3명 악동(이근웅, 우준균, 고김용성)에게 타

2023년 5월 디너 댄스파티 진했더니 모두들 흔쾌히 동의! 매일 아침 한 시간씩 30일을 레슨받고(아무도 결석한 적이 없음) 도서관으로 직행! 댄스 레슨 졸업식은 그 유명하다는 ‘미도파 카바레’에서 선생님(남자) 모시고, 학생들은 Pro Dancer를 사서 훌륭히 치렀습니다. 졸업 성적은 1등 이근웅, 2등 이태안, 3등 우준균, 4등 김용성. 그러나 학교 우등생은 사회 우등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많은 실전과, Continuing Education을 많이 받아야 결국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10여 년을 일주일 한 번씩 wife 하고 댄스 레슨



허서룡(67, 밀워키) 동문



1. 1966년 국방부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으로 왔습니다.

50불, 그당시 정부에서 허용한 최고 액수였습니다. 비행기 연착으로 일본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는 동안 1불을 우편엽서 사는데 처음으로 썼고, 비행기 연착으로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놓쳐서 Holiday Inn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숙박료 10불은 물론 비행사에서 물어주었지만 굉장히 비싸게 보였습니다.

2. 첫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만났고 두번째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찾아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녁도 못 먹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던 길에서 차가 도랑으로 빠졌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내는 따끈한 미역국을 마호병에 담아 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때로는 새로 밥을 지어서 김밥을 싸주던 정성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는 도시락을 매일 안 싸게 되었으니 저의 은퇴는 아내에게 준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3. 원래는 문과에 더 흥미가 있었지만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마취를 전공했고 학교생활과 개업 그리고 임상 연구도 모두 즐겁게 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식 보다는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대 입학 기준으로도 MCAT의 조그만 차이 보다는 그 학생의 인간성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마취과 실습이 끝나는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항상 하던 말은 무엇보다도 좋은 인간이 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4. 전혀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혼의 과정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흐뭇하게 느꼈던 순간은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는 것을

을 받았는데, 무릎이 신통치 않아서 몇 년 전 부턴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Ballroom Dance 인생 Story는 다음 기회에 맥주나 한 잔 하면서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6. 고 3 때 영화감독을 할 수 있는 대학을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총무로 3가에 살았는데(한국 영화산업의 중심지) 주위 환경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화감독, 배우, 단역들 등등.

그러나 서울대학을 포기할 만큼 의욕이나 탤런트는 부족해서, 초심대로 서울의대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의사가 천직인 것 같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보았을 때 이제 내가 죽어도 마음이 놓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어제도 내일도 모두 오늘 속에 있는 것,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애들이 서둘러 쓸어버리지 말아라. 이 아름다운 봄날씨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추사의 족자는 인생의 진리를 말해 주는 듯 합니다.

5. 중학교 수업시간에 어느 선생님이 너의 희망은 무엇이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희망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르네바의 부영이는 그날이 저야 운다>는 말을 들려 주시면서 우선 인생을 충실히 살아보라는 아버님 말씀에 공감,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다시 태어나서 꼭 의사만 되고 싶지는 않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마취 보다는 내과 의사가 되어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민하는 내면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7. 자녀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존경 받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받게 해 주고 우리가 배워온 부모와 어른에 대한 예의를 조금이라고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주고 싶은 유산의 전부입니다.

8.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지만 은퇴하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가 집 근처 호숫가에 있는 공원에 가서 200계단 쭉 층계를 내려가 미쉬간 호숫가를 30분 걷고 옵니다.

40여년전에 앞으로는 의사들이 사업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자는 보험에 관계 없이 의사를 선택하고 의사는 사업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옛날의 제도가 그림자입니다. 한국의 제도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9. 골프도 안 치고 특별한 취미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자연은 점점 가까운 친구가 되는 듯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교와는 아직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동창회와 시계탑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계속될 지 걱정스럽습니다.

말라면 하지 않는” 모범생은 의사 아니면 저에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모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모범 남편’이 되었습니다.

7. 와이프는 Ph.D 후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매일 골방에서 공부하면서 자기네 Journal에 Paper publish 준비하고 Convention Presentation 준비한다고 야단인데, Daddy는 일은 많이 하지만 골프도 치고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 두 딸들이 NO Choice,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 입학으로 8년제 의과대학으로 직행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다음면에>



Feed Hungry Children !

최영자 (66, 대뉴욕)

“Food is life” means that without food we die!!

“음식이 생명이다”라는 말은 음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음식이 모든 사람의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천 5백만 명의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WHO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아 기아에 처해 있고 사망의 45%가 영양실조에 관계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공복을 채워주면 에너지와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학습 기회가 생겨 아이들을 교실로 끌어 들여 더 밝은 미래가 될 기회가 생깁니다. 일년간 primary school 점심을 한 아이에게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은 \$25.20입니다. 이 기금으로 어린이들의 식량문제로 고생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이외에도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Ethiopia의 Urgent Appeal에 우리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는 Mary's Meals USA, Inc*를 통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5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일 년간 점심을 먹고 학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공헌입니까.

SNUCMAA Charity committee가 이번 학교 food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ary's Meals USA, Inc.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Food crisis in Ethiopia:

현재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가뭄, 이주, 잔혹한 분쟁이 결합되어 국가의 많은 지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현재 식량 부족으로 기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배고픔 때문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Tigray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이며 현재 급성 식량 불안이 'Emergency'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Tigray 주민 4.5백만 명이 긴급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곳 학교의 4분의 1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쟁 중에 전쟁 당사자들은 Tigray의 학교를 공격하고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을 군사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더 이상 학습 장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내 실항민들이 전투를 피해 탈출할 수 있는 대피소가 되었습니다. 수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고, 끔찍한 상황에 휩싸이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수용소로, 또 동굴이나 기타 야외 은신처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OCHA(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2024년 1월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에티오피아에서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Mary's Meals, Inc는 학교 food 프로그램 제공 분야의 Leader입니다. 굶주린 어린이에게 학교 수업 일마다 교육 장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을 해당 국가에 보내면 그곳 학부모, 교사 및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영합니다. Mary's Meals는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지역사회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향후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지역 전달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며, 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귀중한 재료가 올바르게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에게 교육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Mary's Meals는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 걸쳐 어린이에게 매일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ry's Meals의 Global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이러한 Global 목표 달성을 향한 세계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사회에서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곤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

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일관된 음식을 정기적으로 보급하여 교육을 받는 모든 아동이 매일 안전하게 올바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배고픔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빈곤 아동을 교실로 끌어들이고 결석, 조기 퇴학 및 중퇴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Mary's Meals는 매우 효율적이고 포괄적이며 우수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실적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비용을 낮추고, 가능한 현지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지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춘 국내 직원을 고용합니다.

유달(67, 메릴랜드) 동문



1. I came to the U.S.A. in 1967 for my general med-surg rotating internship at St. Luke's Hospital in Newburgh, New York. I had legally allowed \$200 plus an extra \$200.

2. I met my first wife, a Swedish medical student at the German Medical School in Wuerzburg, Bavaria, West Germany. I was working as a general internist at the 33rd U.S. Army Hospital (1972-74) in West Germany. We married in 1974 and later divorced in 1986. In 1988, I remarried Maryann Clary, a third-generation Irish-American nurse.

3. My parents used to say “a physician is probably one of the safest professions whether Korea is under democracy or communism.” I practiced hematology-oncology since 1976.

4. The most difficult time in my life, thus far, was the failure of my first

marriage.

5. One of the memorable events during my medical school days was the display of my and others'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poems and drawings outside the classroom on the medical school campus.

6. Yes! I would become a physician, all over again, without hesitation, even if I was re-born.

7. I recommend a “good neighborhood” with desirable school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8. I am ashamed to admit that I'm not doing what I preach! Since my forced retirement in 2020 due to the Covid pandemic, I have become a “couch potato”, which will be changed for better soon. Our current healthcare system in the U.S.A. is not serving the public well.

9. From time to time, I enjoy watching old movies from 1940-1990 via TCM (Turner Classic Movies) television, and playing with my grandchildren whenever the opportunity allows.

10.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our dedicated 'Shi-Ge Top' staff. As I get older, I'll continue to search how I can serve our God, our Lord, the best.

marriage.

5. One of the memorable events during my medical school days was the display of my and others'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poems and drawings outside the classroom on the medical school campus.

6. Yes! I would become a physician, all over again, without hesitation, even if I was re-born.

7. I recommend a “good neighborhood” with desirable school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8. I am ashamed to admit that I'm not doing what I preach! Since my forced retirement in 2020 due to the Covid pandemic, I have become a “couch potato”, which will be changed for better soon. Our current healthcare system in the U.S.A. is not serving the public well.

9. From time to time, I enjoy watching old movies from 1940-1990 via TCM (Turner Classic Movies) television, and playing with my grandchildren whenever the opportunity allows.

10.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our dedicated 'Shi-Ge Top' staff. As I get older, I'll continue to search how I can serve our God, our Lord, the best.

“May God bless you all !”

ative가 있는 Capitalistic Approach를 잘 Combine해야 좋을 것 같은데, 정부나 정치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Apply 할지가 문제입니다.

9. 무릎 때문에 몇 년 전에 볼룸댄스는 포기하고, 피아노 레슨을 몇 년 전부터 매 2주마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 교회 성탄절 음악회 때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과 Robert Schumann의 'Traumerie'를 쳤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었는데, 박수를 받고 나니 다음엔 더 잘 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았

강명식(67, 남가주) 동문



1. 1972년 6월 30일 미국 병원 인턴 1년 계약으로 Ohio 주의 켄톤이라는 작은 마을로 미국에서의 첫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비행기 티켓 \$750을 차용했고 1년 내에 그 빚을 갚았던 기억이 납니다.

2. 본과 2학년 1965년 5월 이화여대 May Queen Festival에 단체 초청이 되었던 쌍쌍파티의 상대방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트하면서 서울에서 인턴하고 군의관 전방 근무 중 결혼하여 춘천, 황지, 영천, 영덕에서 우리는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미국에 온 후 놀랍게도 2 베드 룸 아파트에 에어컨, 냉장고가 있어서 행복하게 느꼈던 때가 생각납니다. 무엇보다도 희망과 기회의 신천지 이 미국 땅에서의 풍성하고 자유로운 하루하루가 지금까지 이어졌으며 건강한 아내와 자식들과 즐겁게 사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3. 집안에 변호사와 의사가 한 사람은 있어야 좋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자라서 그 영향으로 의사를 택했지요. 경제적으로 워낙 불안했던 때라 선택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 항상 약한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본직이라고 생각하고 환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배려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환자의

습니다.

10년 전부터 교회를 가끔씩 나가다가, 4-5년 전부터는 가까운 동네 한국 교회에 매주 나갑니다.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교회이면서 노인회관같은 성격입니다. 늙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Support System을 많이 가꾸어 놓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10. 바쁘신 은퇴생활 중에 봉사정신으로 많은 서비스를 주시는 동창회 임원들, 시계탑 편집 위원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질환을 다루는 의사는 자신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일반외과를 전공했고 개인 개업 후에 은퇴했습니다.

4. 처음 도미 후에 2-3년 동안 수련 중에는 언어소통이 어려웠고 개업 중에도 가끔 소통이 불충분하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환자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나 같은 외국 출신의 의사를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어려운 질병을 치유했을 때 환자와 같이 한없이 감사를 느꼈습니다. 인술이란 진실을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환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 의대 학창 시절 학생회 일로 거의 1년간을 강의료 소홀히 하여 학부 3학년 때 낙제 학점을 듣고 몇몇 교수님께 동정 점수를 간청하여 턱걸이로 진급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찔하기도 하고 학교와 그 교수님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6. 집안 어른들이 사업가들이라 다시 반복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7. 1녀 2남을 두었는데 딸만 의사가 되고 두 아들은 사업가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 자신들의 재능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8. 운동은 생활의 기본이라고 믿고 항상 노력하고 있지요. 테니스와 골프는 점차 줄여가고 요사이는 등산을, 혹은 평지에서 걷기를 하루 1시간 정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은, 저 자신이 잘 모르는 일이지만 정책과 타협이 서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기저기 자주 다니면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일곱 살 때 주일학교에서 주는 피자와 껌 때문에 시작한 예수님과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는 친구, 형님, 아버지처럼 동행합니다.

10. 힘든 때인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미주 동창 회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동창회를 위하여 분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배(64) 동문: 남가주에 거주하시다 지난 4월 4일 별세하셨습니다.
 최준희(64) 동문 부인 이춘자 여사께서 지난 3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조득환(67) 동문: 뉴저지 포트리에서 지난 2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이상훈(68) 동문: 텍사스 Waco에서 지난 4월 6일 별세하셨습니다.

한상호(62) 16회 동기 동문을 추모하며

며칠 전에 한상호 동문이 2024년 1월 5일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인의 오랜 병고에 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된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는 터에 별로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애석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한상호 동문은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서울의대에 입학하여 그때 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학년차로 잘은 몰랐어도 의대 6년간은 한 학교 한 교실에서 희노애락을 같이했던 친구이다. 더구나 고인은 서울서 살던 집이 나의 집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특히 가깝게 지냈다.

한 동문은 1962년 서울의대 졸업 후에 군의관으로 3년 복무를 마친 후 미국으로 와서 펜실베이니아 주 Erie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로 와서 Cleveland Metropolitan General Hospital의 Diagnostic Radiology 4년 연수한 후 인디애나 주 Munster로 와서 거의 30년간 개업을 하고 은퇴 후 시카고로 이사하여 시카고 근교 Northbrook에서 타계할 때까지 거주하였다.

한 동문은 원래 성품이 온순하고 과묵

하여 내가 같이 있는 동안 한 번도 남의 얘기나 험담을 하는 법이 없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천성이 아주 착하고 남과 절대로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다.

의과대학 시절에 학기말 1주일~2주일 시험 때에는 우리 집 바깥채 방에서 같이 밤을 새우며 시험 준비한 것이 어제 같다.

내가 Radiation Oncology 레지던트 하기 전에 Ob-Gyn 레지던트를 그와 같은 병원에서 해서 우리 두 집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고 그때가 아마 제일 가까이 친근하게 지냈던 시절인 것 같다.

내가 은퇴 후 플로리다에서 시카고 근교로 이사 간 후에 5-6년간 같이 있었는데 같은 근교라 해도 떨어져 자주 왕래가 없었고 또 내가 시카고에 있는 동안 COVID로 인해 빈번한 접촉이 없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고인의 병고, COVID 때문에 자주 왕래를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이제 고인의 타계로 서로 멀리 되었지만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미세스 한과 그 가족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장항순(62)



최준희(64) 동문, 64년 동기들과 고 이유찬(4) 동문 자제 James Rhee

불러도,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어...

이제 내 나이도 80줄에 올라서니 요즘 많이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가 부고이다. 그중에 하나가 2024년 2월 13일, 조득환이니 나에게는 기상천외의 일이다.

득환 형과 친하게 된 것은 예과 때 5개 의과대학 체육대회이었던 것으로 함께 야구반에서 지낸 세월이 6년, 아 이렇게 먼저 가다니 가슴 아픈 마음 한이 없다.

나는 중학교 때 야구반에서 활약을 해서 기교는 좋았지만 힘은 득환 형이 더 좋아 난 1번 타자(짧지만 정확한), 득환 형은 장타이어서 4-6번 홈런 타자, 또 포수는 득환 형, 투수는 본인이라는 짝꿍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을 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였는가?

모든 의대 야구 반원들은 기억하시리라. 아니 모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미소를, 말 없는 얼굴에 흥조를 띤 미남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리라.



득환 형은 67년 의대 졸업, 메릴랜드에서 인턴 끝내고, 뉴욕에서 제일 학군이 좋다는 웨체스터로 이사를 왔고, 코넬 뉴욕대학병원에서 마취과 레지던트를 끝내고 뉴욕 Special Surgery 병원(NYU)과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49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가 왔으나 성공적인 Open Heart Surgery(그 당시엔 스텐트 시술이 없었음)로 건강하게 지내면서 운동으로는 주로 골프에 전념하였다. 그 후로 간간이 심장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스텐트 시술로 5번의 시술을 받고도 매번 그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어서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오래 살 친구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이었다. 나는 50여 세에 골프를 시작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프 고수인 그에게서 야구할 때처럼 한 수씩 코치 받기를 즐겼다. 그가 멤버십을 갖고 있는 허드슨 힐 골프장에 초대를 받았던 일, 서울의대 동창회 골프(백승원 회장님 뉴저지) 토 나먼트에서 우승컵을 탔을 때 환호의 박수를 보내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야구는 내가 한 수 위였지만 골프는 그가 몇 수 위였었는데 요즘은 골프코스를 거닐 때마다 옛 생각들이 그리워진다.

지난 1월 말 올란드에서 67년 동기들의 골프모임에 초대를 했지만 나타나질 않아서 궁급은 했지만 요즘 유행하는 감기 정도 앓고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아틀란타로 그냥 올라온 것이 후회막급이다. 올란드와 그의 겨울 별장(Ft. Lauderdale)은 겨우 3시간 운전 거리인데, 작년 11월에 웨체스터에서 손주 가족이 사는 맨해튼에서 가까운 허드슨강 건너편의 포트리로 이사를 와서 뉴저지의 여러 동문들에게 금년 봄의 골프 모임에 큰 희망을 갖다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 했었는데.

그동안 정신과 의사인 부인의 노고와 뉴욕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따님, 특히 결혼 후 손주까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주었으니 그만하면 세상살이에 해볼 것 다 해본 행복한 삶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래도 70 고래회를 10년 이상 넘겼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 고통 없이 떠났으니 다행일세. 이제는 천국에서 골프 실컷 하고, 올마יתי 할 친구들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게나. 나도 세상에 있을 동안 골프 열심히 치고 연습 많이 하여 다시 만날 미래를 준비하다. - 한영수(67)



이상훈(68) 학형 안녕히 가세요

Aug 10, 1942 - March 30, 2024

35년간의 재활의학 은퇴 후 Texas와 Atlanta를 6개월씩 왕래하면서 행복한 여행을 보내던 이상훈 형이 Waco 텍사스 자택에서 3월 30일 새벽 침실에서 조용히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떠났다. 가장 이상적인 Prescription on Death(사망 처방)을 받았다.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갑작스럽긴 해도 형의 이런 죽음은 81세 7개월 나이에 고통이 없이 떠나는 축복된 것이라고 911 Call에 달려온 EMS 요원들이 말했다.

형은 평소의 혈압 약조차도 근래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건강한 체질이였다. 대부분의 68년 동기들처럼 형은 의대 졸업 후 대구 효목동 육군군학교 47기 육군군 후보생 과정을 이수하고 3년 후 육군 대위로 군의관 복무를 끝냈다. 또한 그 기간중에 맹호부대에서 베트남 전쟁에 1년간 참여했고 미국에 온 후에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로서 현역 미군 중령 군의관으로 3년간 U.S. VA Hospital에서, 또 제대 후 30여 년간 텍사스 Waco에서 재활의학 전문 의사로 일했다. 이에 기준하여 이번 영결식에서 형은 US 전역장교 장례예식을 받았다.

슬하에 1남 1녀, 따님 Jennifer와 아드님 David는 둘 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명문 대학과 의과대학을 나왔다. 모두 인술을 베풀고 있으며 특히 아드님 David Chung Lee는 불쌍한 Homeless People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Emergency Medicine과 NYU에서 HIV, COVID-19관련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있는 저명한 의과대학 연구교수이다. 내색은 안 했어도 이형은 마음속으로 이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리라. 이형 부부께서 이렇게 훌륭한 자제분과 손주들을 이 세상에 남기심을 축하드린다.

장지는 Washington Irving이 쓴 Rip Van Winkle에 나오는 Catskill Mountains이 있는 산줄기로 짐작이 되는 Rockland Cemetery이다. 수려한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양편으로 줄줄이 묘지들이 나오고 형의 장지는 가장 높은 산정에 있다. 묘지 입구에서부터 정장을 입은 군인들의 거수경례를 받고 우리는 자동차에 불을 켜고 영구차를 따라서 장지에 도착했다. 벌써 먼저 도착한 조문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취침 75도 맑고 따뜻한 4월 9일, 오전 11시가 되자 나팔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목사의 인도로 예식이 시작되고 트럼펫의 길고도 애처로운 멜로디가 메아리쳤다. 모두들 숙연해졌다. <햇빛은... 저산을 넘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서... 쉬어라. 쉬어라> 성조기가 덮인 Casket 속에서 이형도 같이 듣고 있었으리라. 자제분들이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Shang Hoon Lee, age 81, passed away peacefully at his home in Texas on the morning of March 30th, 2024. He was born on August 10th, 1942, in Korea to Sung Ha Lee and Hak Sil Suh. Shang was a devoted husband, loving father, and cherished grandfather.

Shang was a hardworking man who dedicated his life to his family. He was a veteran of both the Korean military in the Vietnam war and the American military as an army staff physician. He specialized in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caring for both active military service men and women and veterans at the VA Medical Center for over 40 years. Shang will be deeply missed by his wife, Heeja, children, Jennifer and David, and grandchildren, James, Kati & Kira, Abigail, Miles & Eleanor, and the rest of his family. He will be remembered for his steadfast heart, love of singing & listening to operas, and his unwavering love and support for his family.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동창회가 보내온 조화들, 내가 가지고 올라온 글썽이 달린 서울 의대 교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성조기는 곱게 접혀져서 거수경례를 한 장교에 의하여 부인에 전하여지고 부인은 그것을 소중히 받았다. 예식은 기타 연주에 맞추어 <How Great thou Art... 위대하신 신이시여...>으로 4절까지 합창으로 이어졌다. 찬송이 끝나자 형의 Casket이 하관 되고 조문객들은 조화를 한 송이씩 받아서 형에게 떨려뜨려 보내면서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사망이 무엇이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믿음 안에서 사망은 이제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목사의 기도로 예식이 끝났다.

미세스 Lee와 David의 작별 인사를 받고 헤어진 우리 부부는 반 시간 후 북쪽으로 287번 길을 만나 Tappan bridge (현재 Mario Cuomo) 위를 달리고 있었다. 다리 아래 허드슨강줄기가 하류보다도 넓었다. 높이 늘어진 난간의 긴 줄이 은색이다. 새로 세워진 4차선(왕복 8차선) 웅장한 다리가 눈부셨다. Rip Van Winkle 씨처럼 지금부터 한 20년이 지날 때, 대부분의 우리가 떠난 후이겠지만 잠에서 깨어난 이형이 다시 미래의 마을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하면서...



이형! <텍사스에서 모셔온 형의 얼굴은 편안하셨소, 꼭 잠이 들어 목상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문학에 취미가 많았던 형 내외분이 가끔 소인의 수필집과 시집을 받을때마다 보내온 편지들과 축하글들 고마웠어요. 나는 이번에 우리 미주 동창회와 68년 국내의 동기들의 보내온 기도가 담긴 말씀을 듣고 왔어요. 월요일인 4월 8일 워싱턴 버지니아를 출발하여서 뉴햄프셔에서 사는 외손녀들을 돌보아주러 가는 길에 묵고 가려고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Double Tree 호텔에 방 예약했었는데... 우연이라기보다는 너무도 기적같이 꼭 시간과 장소가 맞게 이렇게 형의 영결식에 참석하게 되었네요. 그것은 분명히 신께서 그리 일정을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작고한 형이 동부 Moritz Funeral Home, Tappan, New York에 오셨다니... 그것도 내 일정에 맞게... 이렇게 우리 부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형의 얼굴을 본 영광을 누렸어요. 영결식에서 David가 말한 것처럼 80여 년간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은 때로는 험악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참 따뜻하고 풍요로웠어요. 이번 이 세상의 우리의 인연은 우선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에 비금가는 아름답고 좋은 인연이 또 다른 세상에서도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 서윤석(68)



이상문 동문
(08 졸업, Inocras Inc.)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왔나요?
모교 병원에서 안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던 2012년 무렵,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동료들처럼 군의관으로 군대에 다녀와서 전임의를 하며 계속 임상의로서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미련이 남아있었던 기초의학 분야에서의 연구를 할 겸 병역을 대신하기 위해 박사 과정을 밟을 것이냐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것 보다는 군의관보다 2년이 더 걸리더라도 일단 박사과정을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박사과정 5년 동안 희귀유전질환을 연구하였는데 마침 유전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때를 같이 한 덕분에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장차 교수로서 유전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 졌고요. 외국의 좋은 연구실에서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연구를 해보고 싶은 바람으로 미국 여러 연구실에 박사 후 과정을 지원하였고, 결국 2018년 여름에 UC San Diego의 Dr. Joseph Gleeson 실험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2. 포닥 연수 준비 과정은?
제가 레지던시 매칭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지만, 레지던시에 비해서는 박사 후 과정에 지원하고 준비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닐 듯 합니다. 사실 상위 저널에 실린 좋은 논문이 있다면 미국의 연구실에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여러 군데 지원을 해서 몇 군데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결국 제가 가고 싶던 연구실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사 후 과정의 초반에는 외국 생활에 대한 신기함과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설렘, 약간의 향수병, 좋은 결과를 빨리 내고 싶다는 조급함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

나면서 실험실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새로운 결과도 내게 되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샌디에고를 좋아하고 저도 이 곳에 계속 살아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지만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업계로 진출하고자 알아보던 차에 마침 현 직장인 Inocras Inc. (구 Genome Insight)에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몸 담고 있는 회사 소개 해주세요.
Inocra는 2020년 초에 한국에서 창업된 회사로, 본교 의대 동문인 주영석 (07년 졸) 선배와 이정석 (08년 졸) 동기가 공동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회사 본부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옮겨서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장 유전체 (whole genome)를 제대로 서열 분석 (sequencing)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회사의 주된 역량입니다.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암유전체 연구 및 진단입니다. 이미 유전체 분석이 암의 표적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유전체의 아주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기존에 보고하던 표적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표적을 발굴하고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회사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상당히 바쁘게 지냅니다. 저희 회사가 아직은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결정과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해서 회의도 다소 많은 편입니다. 팀원들과의 일대 일 회의도 매 주 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많은 시간을 암 환자의 유전체를 들여다보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새롭고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이것들을 직접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비록 환자를 직접 보고 있지 않고 심지어 제가 전공한 안과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분야이지만, 자료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자들을 보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5. 샌디에고는 어떤 도시인가요?
샌디에고에 처음 와서 살면서는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바로 이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일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엄청나게 비싼 물가 때문에 살기가 팍팍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워낙 동양인들이 많이 살아서인지 H Mart 등 한인 가게들도 있고, 아이들 학교에도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어서 소외감을 느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자연도 참 좋습니다. 울창한 숲이나 계곡

이 아니라 다소 황량한 사막도 이 근처에 있는데, 왜인지는 몰라도 저는 사막이 참 좋더라고요. 덥지 않은 날씨에 자갈과 구름과 선인장이 군데군데 있는 사막을 걷다 보면 바람 부는 소리와 제가 땅을 밟으며 내는 잘그락 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6. 미국에 온 후 생활 패턴이나 성격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도 가정적인 편이었다고 자부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는 그럴 친구들도 없고요 저녁이면 다들 바로 퇴근하니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을 내어 운동도 하고 여러모로 삶이 풍요로워진 느낌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삶이 훨씬 단순해진 것 같은데,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요. 성격은 크게 변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지만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보는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드는 생각은? 휴일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큰 아이가 여섯 살 때 미국으로 왔기에 사실 한국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워봤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경로로 통해서 들어보면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그런 면에서는 이곳이 야외활동 및 체육 활동도 많이 하는 등 아이들에게는 더 건강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 안에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말에는 가능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짧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캠핑을 가거나 하이킹도 하고요. 사실 미국에 계속 있을 생각으로 박사 후 과정을 온 것이 아니다 보니 이 기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곳을 보고 싶은 생각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왔습니다. 특히 자연을 좋아해서 국립공원들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인터넷을 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와이오밍, 뉴멕시코의 모든 국립공원을 다 가봐서 샌디에고에서 차를 몰고 가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는 가보지 않은 국립공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아이들은 동물들이 뛰노는 엘로스톤 국립공원을 좋아합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모래 언덕에서 모래 썰매를 타던 것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는 몬태나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가보고 싶습니다.

8.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동아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음악반(오케스트라), 이울 진료회, 야구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더블베이스를 연주했던 음악반에서는 동아

리 반장을 맡기도 하면서 제일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예과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음악반 연습을 보러 갔던 날 저녁에 오케스트라가 첫 소리를 함께 내기 시작한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하모니가 울리던 순간 이 씨클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야구부에서는 저희 팀이 서울에 있는 의대 야구부들끼리 하는 리그에서 우승했던 것이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울 진료회는 그래도 제가 의학도로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계절 진료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9. 졸업 후 더블베이스를 다시 손에 잡은 적이 있나요? 취미 활동은?
한두 번 동아리방에 놀러 가서 좀 해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다시 한 적은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악기 연주와는 먼 삶을 살고 있네요. 지금은 사실 첼로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줄지는 모르지만 제가 첼로를 연주하고, 아이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해서 언젠가 삼중주를 해 보는 것이 꿈입니다. 운동은 아직은 취미라기 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편인데,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하고 골프도 가끔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취미가 아니라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회사 생활이나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학계를 떠나 업계의 첫 직장으로 스타트업에 합류한 만큼, 일단 회사가 잘 성장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단기적인 소망입니다. 첫 직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니지만 스타트업의 매니저 위치에서 성공을 경험하면 앞으로도 자신 있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커리어를 뒤돌아보면 의사로서는 인턴, 레지던트만 했고, 학계의 연구자로서는 8년 정도, 이후로는 또 업계에서 일 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좋게 말하면 여러 경험을 한 것이지만 반대로 보면 무엇 하나 진득하게 한 게 없어서 사실 후배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즘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제 주변에서도 꽤 많이 봐서 제 커리어가 아주 특이한 예는 아닐 듯 합니다. 우리 동문들처럼 명석한 분들이야 어디를 가든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원 밖에도 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마음껏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생활이 좋다 나쁘다에 관한 정답은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저는 일단 해보자는 편이라서 후배님들께도 만약 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차차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71 동기회 이야기

남가주 서울 의대 71회 동기회 18 Couple 은 세 달에 한 번씩 부부 동반하여,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2013년부터 끈끈한 우애를 다져왔다. 가끔 유익한 강사도 초빙하기도 하지만, 주로 동문들의 희로애락의 삶을 나누며 지내왔다. 좋은 일이면 같이 기뻐해주고, 힘든 삶이 몰려올 때는 가슴을 적시며 슬퍼해주는가 하면, 때로는 귀 기울여 가슴속 깊은 소리를 들어 줌으로써 각자의 삶을 인정해 주며 서로의 영혼에 의지해 온 동문들이다. 언젠가는 삶과 죽음조차도 함께 할 아름다운 동문들의 모임. 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71회 동기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모임이다.



남가주 서울 의대 71회 동기회 18 Couple 은 세 달에 한 번씩 부부 동반하여,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2013년부터 끈끈한 우애를 다져왔다. 가끔 유익한 강사도 초빙하기도 하지만, 주로 동문들의 희로애락의 삶을 나누며 지내왔다. 좋은 일이면 같이 기뻐해주고, 힘든 삶이 몰려올 때는 가슴을 적시며 슬퍼해주는가 하면, 때로는 귀 기울여 가슴속 깊은 소리를 들어 줌으로써 각자의 삶을 인정해 주며 서로의 영혼에 의지해 온 동문들이다. 언젠가는 삶과 죽음조차도 함께 할 아름다운 동문들의 모임. 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71회 동기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모임이다.

고 이유찬(64) 동문 자제 저서 발간

Good morning, It is hard to believe that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email below. Thank you again.
I have wonderful news. On April 9, my book, "red helicopter" (<https://www.redhelicopter.com/thebook>) will be released by HarperOne,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The book is about my dad and mom, and the entire generation of immigrants from that time period. It's also about how their children (in this case, me) discovered their Korean identity and then used it to find success in this country (there is a TED Talk? <https://www.redhelicopter.com/media2>). You can find an original piece of music on this same website on Immerse, which is a blend of Arirang and Amazing Grace.
AND, there is a prominent Korean publisher who is translating the book into Korean for Korea! I am communicating directly with SNU in Seoul.
Would you please share this news with the SNUCAA and SNU alumni base and encourage them to read it and share it with their children too? I think that it will resonate with them.
I have copied Sarah, who can share with you any graphics - book announcement, picture of me and dad/mom, etc. I visited the old medical school in March 2024 and received a tour there. I saw the original building...
Thank you and I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 James Rhee



벌써 의대를 졸업한 지가 58년이 되니 107명 졸업 동기 중 29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남은 78명 중 40명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 85세까지 생존율이 15%, 90세까지 생존율이 5%이라는 보고를 보면 80세까지 산 것도 대단한 축복이다. 이제 모두 81세 이상이 되고 보니 철모르던 18세와 달리 아무 기억도 잘 나지 않고, 학교 점수 걱정하는 18세와 달리 고혈당이나 혈압을 걱정하고, 마음이 연약한 18세와 달리 다리뼈가 연약한, 또한 사랑에 숨 막히는 18세와 다른 딱 먹다 숨 막히는 81세가 되었다.

지난 55주년 졸업 기념으로 우리의 왕회장 김용재 동기의 열성으로 2022년 9월에 뉴잉글랜드 크루즈 여행을 불편한 몸을 끌고 버지니아에서 참석한 김진수, 미시간 주에 살고 있는 조의열, 보스턴 지역에 사는 정상국, 그리고 남가주에 사는 한동수와 김의신 동기 부부 모두 12명이 다녀왔다. 불행히도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 있는 동기들의 참석이 없어 아쉬웠지만 우리들은 기쁘고 즐거운 여행으로 이번에는 멕시코 크루즈를 다녀왔다. 몸이 불편한 김진수 동기가 참석할 수 없었지만 남가주 동기 대표인 박웅길 동기 부부가 참석했다. 1200년대 페르시아 시인 마울라나 잘라루딘 루미는 “여행은 힘과 사랑을 돌려준다. 곁마다 변화하는 세계를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힘과 사랑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3000여 명 승객을 태운 십만 사천 톤의 거대한 새 디스커버리 프린세스 배에 지난 1월 6일 로스앤젤레스 샌 페드로 항구에서 간단한 수속을 거친 후 올라타서 16층에 있는 식당에 모여 점심 식사를 시작으로 끝없는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동기 친구들과 만나면 지난날 했던 고생스러운 추억의 이야기들을 또 해도 즐거움은 계속되고 무료한 시간을 심심치 않게 즐기며 과감한 우스꽝스러운 동작도 부담이 없고 주변 신경도 크게 안 쓰고 더 많은 액티비티를 같이 할 수 있어 안전한 하루가 길어지는 것 같다. 또한 친구들과 의견 또는 표현이 달라 투닥투닥 하다 보면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되어 친구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어떤 친구는 soul mate 가 될 수도 있다. 좋은 친구가 생길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더 행복하다고 한다. 인디언 속말에 “진정한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란 것은 속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이 우리의 인생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건강한 장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70년 이상 하버드대학교 장수 연구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다. 여행은 또한 새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 환경에 잠시라

졸업 58주년 기념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다녀와서

김의신(66, 남가주)



도 적응하면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다.

저녁식사는 6층에 있는 Skagway dining room을 예약해서 첫날만 큰 테이블에서 12사람이 저녁을 같이 했고 나머지 날들은 여자 남자 각각 6사람씩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마음껏 부인들은 끝없는 수다를 떨 수 있었고 남자들은 조의열과 한동수 동기들의 특별 드링크 페이저로 산 와인 및 칵테일을 마시면서 각종 주제로 즐거운 대화를 가졌다. 우리의 몸은 육체, 정신과 영혼의 결합으로 되어 정신 건강에 중요한 믿음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각자의 삶의 철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나이에 비해 젊게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에 현실적이고 긍정적이며 무엇에나 집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노후준비가 되어 여행하는데 큰 부담이 없고 남을 배려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알맞은 운동을 한다고 한다. 우리의 여행 중 갈 때 올 때 두 번 언급 상황이 벌어져 헬리콥터가 와서 환자를 샌디에고 병원으로 데려갔기에 우리도 차후에도 외국이나 긴 여행은 피할 수밖에 없다고 모두 동의했다. 심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해도 4-6시간 내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14층에 있는 별실에서 프로페셔널 사진사인 조의열 동기가 전 세계의 아름다운 곳을 미친 듯이 다니면서 찍은 예술 사진들을 한 시간 정도 감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듯해서 참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꼈다. 35만 장 정도의 사진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나고 또한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넘길 것이냐고 물었으나 아직은 답을 못하는 형편이었다. 조의열 동기에게서 자극을 받아 아직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한동수 동기도 같이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둘이서만 첫 번째 내린 항구 Cabo San Lucas에서 낙타를

타는 관광을 해서 찍은 사진은 인상 깊었다. 남은 우리들은 여행을 많이 한 정상국 동기를 따라 미니버스를 대절하여 시내 관광을 4시간 이상 하면서 점심을 비치 호텔에서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 미세스 한동수께서 당뇨약인 Insulin 주사약을 사려 하는데 배 안의 의무실에서 처방전을 요구하면서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기에 많은 약국 중 6군데를 다니다 찾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고 그곳의 의료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약국의 문에 있는 유리창에는 Viagra 선전이 맨 위에 있는 것이 남자들의 성욕을 채우려고 애쓴 것 같았다. San Lucas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18개 골프장들이 있어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골프 여행을 200-400불 비싼 그린 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는데 정상국, 김용재 및 한동수 동기 부부들은 이미 다녀왔다고 해서 부러웠다.

매일 저녁 조의열 동기의 사진 감상 전 또는 후에 나는 30분 정도 Covid virus와 전 NIH 알리지 전염병 과장인 Anthony Fauci의 미국회 청문회 보고, Stem cell 치료 현황, 어지럼증, 자율 신경성병 및 비만증 원인, 기전 및 치료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동기나 부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더불어 김용재 동기와 함께 만담과 음담패설로 잠깐이나마 기쁜 좋게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두 번째 정박한 항구는 Mazatlan인데 정상국 동기의 안내로 미니버스를 대절하여 시내에서 성당 주위를 관광한 후 긴 해변가를 드라이브를 하다가 바닷물 위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는 곳에 멈추어 나

이가 들어 보이는 장년이 위험한 jump를 하고 몇 관광객에게서 각 10불 정도 회사금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 아름답고 자원이 많고 충분한 인구도 있는 멕시코에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도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 Acapulco나 Cancun을 자유롭게 여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마약법들을 정부에서 제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운전기사가 귀뜸을 해주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린 항구는 Puerto Vallarta인데 정상국 동기의 안내로 미니버스 시내관광을 하다가 Chico Paradise 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정상국, 한동수, 박웅길 부부는 그곳에서 유명한 레드 스내퍼 생선 요리를 시켜 추억거리를 만들었다고 두고두고 자랑을 했다. 점심 전 우리는 Tequila 가까운 곳에서 선인장으로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Tequila 술을 만드는 곳을 견학하고 또 각 종류를 마셔 보면서 더 익숙한 Magarita와는 다른 맛을 경험했다.



이번 크루즈에서 휴대전화와 laptop 컴퓨터의 network connection에 큰 불편이 있었다. 돈을 요구하는 대로 미리 냈어야 하는데 정보가 분명치 않았었다. 아침, 점심 저녁식사는 생각보다 좋았으나 선내의 entertainment는 비교적 적고 생각보다 빈약했다. 매일 각종 dance class에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 중 유일하게 정상국 부부만 파친코에서 돈을 잃지 않았다. 특히 미세스 정은 아마 기계에서 돈을 빼내는데 특별한 재주나 행운이 있는 모양이어서 이번 크루즈에도 특별 등급 멤버로 아주 싸게 배를 탔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가 비교적 짧은 평범한 크루즈 여행이었지만 배에서 내릴 때 너무 헤어지기 싫어 내년에 같은 크루즈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조용필의 노래 ‘친구여’ 가사가 다시 떠오른다. “옛일이 생각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친구여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몸이 불편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동기들에게 미안하고 보고 싶다. 특별히 김진수와 심정섭 동기들이, 내년에 더 많은 동기들이 합류할 수 있길 바란다.

추사 김정희의 족자 감상

落花童冥掃 春色不多餘

꽃잎이 떨어진들 애들이 서둘러 쓸어버리지 말아라, 이 아름다운 봄 날씨도 얼마 남지 않았다.

허서룡(66, 밀워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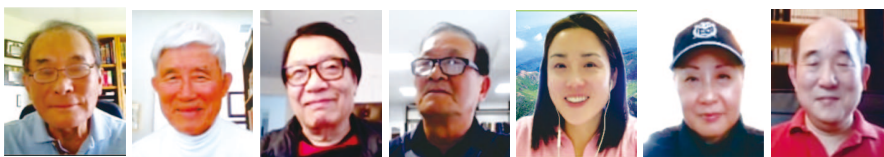


Utah 주를 지나다 보면 Dinosaur Monument가 있다. 공룡의 화석을 캐어내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Cosmic Calendar(by Carl Sagan)를 재미있게 배웠다. 지구의 나이 4.5 billion은 상상하기 어렵다. 코스믹 카렌다에 따르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4월, 공룡은 12월 24일에 태어났다가 12월 29일에 멸종, 인류는 12월 31일 저녁 11시 52분에 태어나 12시 자정에 있다고 한다. 440년은 코스믹 카렌다에선 1초, 인류의 지나간 4~5천 년은 불과 10여 초에 불과하다. 추사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였을까?

내가 어렸을 때 손님이 오시면 술 한 잔에 이 족자를 꺼내 벽에 걸어놓고 흥겹게 떠들어대시던 아버님을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후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아버님은 이 족자를 읽어주셨지만 그때도 그런가 보다 했을 뿐이었다. 항상 벽에 걸려있는 이 족자는 하나의 장식으로만 보았다. 그런데 요즘 이 족자 앞을 지날 때면 발길을 멈추곤 한다.

불수록 추사의 필체도 그 뜻을 전해주는 듯 멋있어 보인다.

시계탑 4월호 편집회 초록



편집회가 2024년 4월 13일 동부시간 오후 1시부터 Zoom으로 열렸다.

참석자는 노영일, 서량, 서인석, 박은경, Jamie 김 사무장, 황창근 사장 그리고 서윤석 이며 서귀숙 위원 특별한 사정으로 참가를 못했으나 모든 원고의 교정 및 수정을 이메일로 담당했다.

황 사장과 김 사무장이 참여한 주소록 2024 발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4월 말에 최종 편집 및 교정을 마친 후 인쇄에 들어가 6월 말에는 완성되어 7월호 시계탑과 같이 회원들에게 발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계탑 창간 50주년을 맞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계탑 문집 겸 화집 책자에 대한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박은경 동문의 유타 주에서의 생활이 아주 흥미롭고 특이하다고 느껴져서 그에 대한 소개 글을 7월호에 신도록 부탁했다.

들어온 원고의 양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을 받았으며, 2024년 주소록의 표지를 도안한 노영일 위원의 표지에 담긴 설명이 있었다.

모교 동창회 회장에게 모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에 대한 북 미주동창회의 의견 서신을 시계탑 첫 면에 신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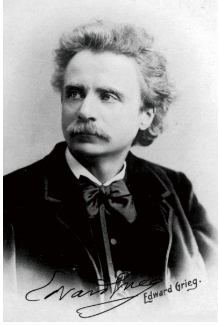
다음 편집회는 7월 13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 글: 편집장

Grieg의 집을 찾아서

이 건 일 (68, 남가주)

나에게 이번 Norway, Iceland 여행 중의 백미는 Bergen(베겐) 교외에 있는 Edvard Grieg의 집(Troldhaugen)과 그의 작업실과 음악당(Troldsalen) 방문이었다.

Edvard Hagerup Grieg(1843-1907)는 잘 알다시피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1843년 노르웨이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Bergen에서 상인인 Alexander Grieg(1806-1875)를 아버지, 음악 선생이었던 Gesine Judithe Hagerup(1814-1875)를 어머니로 1843년 6월 15일에 출생하였다.



그는 로맨틱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의 하나로 그의 음악은 세계적으로 널리 자주 연주되는 standard classical repertoire에 들어간다.

그는 노르웨이 민속 음악을 사용하여 작곡을 하였으며 이로써 노르웨이 음악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 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마치 Jean Sibelius와 Antonin Dvorak이 Finland와 Bohemia(현 체코 공화국)의 정체성을 확립 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듯이.

Grieg(Grieg)는 nationalist였으며 동시에 cosmopolitan 이었다. Bergen에서 태어나 거기에 묻혔지만 그는 유럽 전역을 널리 여행했으며 그의 음악은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동시에 유럽의 문화적인 요소를 같이 품고 있었다.

그는 Bergen 출신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이며 시내에는 그의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시내에서 제일 큰 음악당(Grieg Hall), 제일 잘 알려진 음악 학교(Grieg Academy), 합창단(Edvard Grieg Kor), 시내에서 제일 큰 호텔(Quality Hotel Edvard Grieg), music technology developer (Grieg Music) 등이 그의 이름을 쓰고 있으며, 그리고 그를 기념하여 그가 살던 Troldhaugen (Grieg's former home in Bergen)에 세워진 The Edvard Grieg Museum 등이 있다.

Trold는 노르웨이 전설에 나오는 숲속에 사는 작은 괴물 troll을, haug는 Old Norse어로 haugr 즉 언덕을 의미하는 hill이나 knoll을 말한다.

이번 여행에서 발견한 사실은 하루에도 비가 몇 번씩 오가는 우중충한 날씨에 울창하고 음침한 숲속에는 Troll이 살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작품 중 제일 유명한 것이 Henrik Ibsen의 각본을 토대로 한 Peer Gynt 조곡, 그중에서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Anitra's dance", "Solveig's song(원 발음은 슬베이 G는 발음 안 한다는 것을 이번엔 안내인에게 배웠다.)" 등이 유명하며 그의 교향곡 등과 피아노 협주곡 A단조 등이 있다.

이 피아노 협주곡은 옛날에 본 지금은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는 영화에서 Vittorio Gassman이 주인공으로 나와 연주하는데 그와 결별하는 여주인공이 그가 연주하는 이 곡을 들으며 음악당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 영화

생각이 난다. 일종의 조건 반사인 셈이다. Aalesund(올레순)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남짓 날아 Bergen에 도착하니 아직 오전이다. 비행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Troldhaugen Grieg Museum이 있다는 것은 지도를 보고 알았다. 같이 가보자는 제안에 따라나선 것은 김명원 내외, 혼자 온 최철 그리고 우리 내외뿐이었다.

안내인에게 이야기하여 버스에서 우리를 내려주면 뮤지엄 구경하고 택시로 호텔로 가서 시간이 되면 오후 2시에 있는 시내 관광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Grieg의 집은 버스에서 내려 언덕을 한 5분쯤 걸어 올라간 곳에 있었다. 주위는 온통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경치가 기가 막힌다. 이런 곳에서 살면서 작곡을 하였으니 음악이 저절로 만들어졌겠지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안내소에 들리니 12시에 시작하는 한 시간쯤 걸리는 연주를 듣겠느냐고 물어본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 그냥 구경만 하기로 하였다. 좋은 기회 같은데 놓치는 것 같아 아쉬웠다. 나중에 후회할 것은 잘 안다.

옆서 몇 장과 Ole Kristian Ruud가 지휘하는 Bergen Philharmonic Orchestra의 연주로 녹음된 Holberg Suite와 몇 개의 관현악 곡이 수록된 CD를 한 장 사 갖고 나왔다.



언덕을 조금 올라가 보니 그가 살던 집이 나온다. 별로 크지 않은 이층짜리 흙벽돌로 생긴 목조 건물이다. 뒤로 돌아가 관람객 입구로 들어가 보니 한 때의 단체관광단이 안내자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다. 우리도 같이 좀 듣다 보니 청년 하나가 피아노 연주를 한다.

그가 생전에 쓰던 Steinway piano인 것 같다. 곡목은 잘 모르겠으나 그의 소품 중 하나인 모양이었다.

그가 살던 집에서 그가 쓰던 피아노로 연주되는 그의 음악을 들으니 이보다 행복할 순 없으렸다.

연주 끝나고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자기는 중국인 아버지에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피아노 공부 마치고 이곳 Grieg Academy에서 공부 중이란다.

세상이 좁기는 좁은 모양이다. 하필 이 Bergen까지 와서 반쪽 한국인 청년의 피아노 연주로 Grieg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뜻하지 않은 행운에 감사하며 집 밖으로 나와서 정원을 구경 하였다. 다시 조금 걸어 내려와 보니 Troldsalen의 풀을 덮은 지붕이 보인다. 건물 옆길로 내려가 보니 호숫가에 그가 작곡을 하던 작은 빨간 오두막집이 나온다. 주위는 온통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로 fantastic view를 가진 곳이다. 다시 오솔길을 올라가 막 연주가 끝난 음악당 속으로 들어가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acoustic을 가진 music hall이라고 한다.

서둘러 택시를 불러 타고 호텔로 가니 오후 관광 시간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Grieg와 만나는 모처럼 만의 즐거운 기회였다. Bergen 시내 관광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2024년 4월 뉴욕 롱 아일랜드 풍경

서 량 (69, 대뉴욕)



뜨거운 생선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출렁이는 산소와 질소
물속에 깊이 파묻혀 사는
나는 비린내 풀풀 풍기는 생선이다
대기권 한 바퀴 돌고 난 후
좋아라 꼬리치는 우주
눈부셔라 빛발치는 조명

詩作 노트:
Long Island Expressway Exit 71로 빠져 로컬 길을 5분 안쪽으로 운전해서 찾아간 좀 촌스럽고 조그만 Long Island Aquarium이다

호랑이 상어

유리 벽 건너 나와
거침없이 함께하는 당신
나도 사뭇 사나워지네
나를 날렵하게 스치는 순간
어흥 어흥
괜시리 좋아지네
이유도 없이 전혀 아무런

詩作 노트:
나보다 큰 몸뚱어리를 순 지 맘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Tiger Shark 앞에서 나도 이빨을 들어낸다 어때 무섭지?



덕 타운

조그만 롱 아일랜드 타운
니은字 육중한 자세
가우똥 하는 걸눈질
자칫 깨질세라 big duck
하늘을 헤매다 big duck
컴컴한 뱃속에 들어가서
붕 뚫다 내려온다 나는 새파란 하늘을

詩作 노트:
대학시절 친구 하숙집 단칸방 정도 크기 오리 뱃속 gift shop 만화처럼 그린 오리 그림 한점을 싹 샀다



입

멈추지 못한다
물씬한 생선 비린내
눈살 찌푸리며
절로 터지는
가장 높은 음정 high C note
마구마구 요동치는
바다 속 제일 깊은 곳에서

詩作 노트:
주둥아리가 저 정도라면 몸집은 최소한 school bus 크기는 뒀을 거다 하며 나도 입을 왕창 크게 벌린다



상공에 꿈을 싣고 (1)



박정일 (67, 시카고)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에서 5분 거리에 비행장이 두 개가 있고 비행 학교도 달려있는 것을 알아냈지요. 다음날 한곳에 들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달력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집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요 그랬다가는 비행기를 배운다는 것을 처음부터 집어치워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었지요. 나름대로 세운 계획은 일단 비행을 배우고 면허를 딴 후에 백배사죄하고 실तो를 하는 것이 바른길인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면허를 딴 후에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실토하고 축하 만찬을 하는 것이었지요. 일이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대로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비행 학교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 주소를 꼭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것만은 꼭 기록해야 한다가에 사무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주소는 주겠으나 절대로 집에 편지나 bill 같은 것은 보내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고 그런대로 직원이 일을 철저히 배려해서 1년 가까이 무사히 지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포함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비행사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저의 집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전화 통화가 되자마자 전화 저편에 집 사람의 목소리는 천둥 번개와 같은 고성과 질타의 소리가 날라 들었습니다. 일이 틀어지러니까 담당 직원의 휴가 중 다른 직원이 대행 업무를 하는 바람에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되었고 저의 여왕님께서 왈 “오늘 비행장에서 청구서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껏 부풀었던 기대와 자부심은 순식간에 무너졌으나 목적은 달성했다는 기쁨으로 한쪽 귀통이에서 실금 실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게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은퇴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중에 특히 비행 운전면허를 딴 것이 무척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직까지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길을 터놓은 것 같아 기쁩니다.

저의 집사람은 항상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뜬금없이 지나가다 하늘에 비행기를 보면 저를 쳐다보면서 “저건 절대 안 돼요” 하곤 했습니다. 평소엔 비행기 얘기라도 하곤 했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겠지만 제 자신 비행기를 타겠다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도 없고 입으로 내뱉은 적도 없는 처지에 그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자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지내 왔지요. 사실 저는 작은 세일 보트를 사서 미시간 호수를 넘나들다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배가 전복되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난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척추 골절로 일시 하반신 마비 증상이 온 적도 있지요. 저의 집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갔지요.

은퇴를 한 후 1년쯤 됐을 때 비행기 소리가 나길래 하늘로 고개를 들어 보았더니 경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거 한번 배워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갔지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걸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던 차에 문득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비행

전화 벨이 울렸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다. 뜻밖의 전화라 처음에는 누군가 알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름을 듣고 보니 어릴 적 개구쟁이 시절의 친구였다. 반세기가 넘도록 연락이 없다가 문득 전화를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였으나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 다시 소년시절로 돌아간 듯 따뜻한 우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돈암동에서 시내를 거쳐 서대문, 홍제동을 지나 문산까지 갔다 오곤 했다. 자전거 앞바퀴가 전차길에 빠지면 영락없이 넘어지는데 몇 번 호되게 다친 기억도 난다. 중간에 시내물에서 고기를 잡아 오기도 했다. 그가 가져온 무슨 나무뿌리 같은 것을 돌로 쪼아 물에 풀어 놓으면 피라미들이 기질을 하여 흰 배를 내놓고 물위로 둥둥 떠오른다. 그것들을 건져 집에 갖고와 어항에 넣으면 고기들이 다시 살아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때 돈암동에는 담배위산이라고 있었는데 돈암동 쪽은 깎아지른듯한 바위 절벽이고 안암동 쪽으로는 보통 산이었다. 바위위에 올라가 고함도 질러보고 산 위를 뛰어다니며 나비, 잠자리, 매미, 메뚜기 등을 잡던 기억도 난다.

연을 날리며 연싸움도 하였는데 서로 실이 어긋나게 하여 상대편 실이 끊어지면 이기는 것이었다. 실이 끊어지면 연은 멀리멀리 날아가 버리고 실만 허스허스하게 하늘에 떠다니다가 맥없이 땅에 떨어지곤 했다. 연실에 풀을 먹이면 실이 뻗뻗해 지고 질겨져서 잘 끊어지지 않는다. 풀에 유리가루를 살짝 섞어 넣으면 실이



마지막 전화

노영일 (68, 시카고)

칼날같이 날카롭게 되는데, 이것을 쓰면 상대방 실을 자르기가 쉬웠다. 경기 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를 쓰던 이기면 상책이었다.

골목길에서 야구를 하다가 공이 남의 집 담 넘어 들어가면 손발이 달도록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맹세를 하고 공을 찾아오곤 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면 공은 둘째고 잡히지 않도록 쫓무니가 빠지게 도망가 숨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때 야구공은 곰보 무니가 있는 딱딱한 고무로 만든 공이었다.

도봉산에 올라가 텐트 앞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그가 숨겨 가져온 담배를 몰래 한번 피워 보고 무슨 스틸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 당시 길거리에는 썩지가 서로 붙어 떨어지지 못하는 개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암놈이고 숫놈이고 힘센 쪽으로 질질 끌려 다니곤 했다. 몽둥이를 들고나와 후려치면 개갱갹하며 떨어져 서로 제갈길을 가곤 했다. 마치 시암 쌍둥이를 분리하듯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개들을 고난에서 구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몹쓸 짓을 한 것이었다.

여름 방학 때 미사리에 캠핑 갔을 때였다. 지금은 조정 경기장이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한적한 한강의 한 지류였다.

파일럿의 비행 경험 기록은 비행시간으로 규정 됩니다. 예를 들면 여객기 기장들의 비행시간은 대체로 30,000 내지 40,000 시간입니다. 시간당 450 마일을 가던 100마일 가던 몇 시간을 날랐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파일럿 라이센스는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ports pilot license는 최근에 신설된 면허로 최소의 훈련으로 비행할 수 있는 면허이나 날 수 있는 고도나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면허를 따고 하면 private pilot license를 의미하는데 젊은 사람은 빠르면 6개월 정도에 딸 수도 있으나 60대 후반에 비행을 시작한 나와 같은 경우는 일 년이 걸렸고 한 번 낙방의 고배를 마신 후에야 딸 수 있었습니다.

Commercial license는 듣기에는 직업비행사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여객기가 아닌 일반 프로펠러 비행기로 손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나 대형 항공사에 처음 고용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저 같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받는 면허이지요. 실제로 어려운 것은 라이선스도 아닌 instrument rating입니다.

Rating이란 private pilot license, commercial 또는 ATP(Airline Transportation License) 라이센스를 이미 가진 사람이 각종 다른 종의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콤플렉스와 instrument Rating을 갖고 있으나 민간 항공사의 파일럿들은 각 기종에 따른 rating을 받아야만 그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종을 타지 않고 얼마가 지난 경우에는 다시 복습 훈련을 거쳐 새로 rating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수시로 겪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손님의 입장에서서는 참으로 다행인 제도라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Boeing 737을 운행하다 회사 내에서의 자리바꿈으로 보잉 777로 변경하는 경우 그 기종에 맞는 rating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비행사들을 위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사는 비행사의 훈련 기간 중 훈련 비행 일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자기들이 정식 비행기 운영할 때 받는 같은 비율로

보상을 받는 특권을 누리지요.

Airline industry의 파일럿 부족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Junior pilot에 대한 예우는 별로 신통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식 3-4년제 Aviation School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local airport에서 flight instructor로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쌓고 ATP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ce를 받으면 항공사 파일럿 취업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Flight instructor는 학생이 비행을 하고 옆에서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비행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Rating에 관한 한 유명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지요. John F. Kennedy Jr.의 사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은 instrument Rating이 없는 프라이빗 파일럿이 밤중에 바다 위를 비행했다는 것이지요. 야간 바다 비행은 시야의 착각으로 고도를 알지 못한 채로 비행하는 수가 많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다 쪽으로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바다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미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되돌릴 수 없게 되어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Instrument rating을 소지한 비행사는 밤이나 시야가 가린 구름 속을 비행할 때 밖의 object에 의존하지 않고 계기판만을 보면서 비행기의 고도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파일럿들로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 다행히 때 안전한 고도로 야간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퇴 후 시작하여 15년간 1,700시간의 비행 경력과 instrument rating과 complex airplane rating을 소지한 저로서는 일단 걸음마 단계는 벗어난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많은 프라이빗 파일럿들이 처음 수백 시간 동안 열심히 비행하다가 그 이후 1년에 50시간 이하의 비행을 하고 비행기만 방치하는 경우에 비하면 나는 그동안 짧은 기간에 남들보다 많은 비행을 하며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비행 중 느꼈던 감상, 여러 가지 에피소드, 무용담 같은 것들을 다음 회에 올리겠습니다.

히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 할 수없이 아버지에게 이실직고 하고 돈을 받아다가 볼모로 잡힌 친구들을 구해온 기억도 있다. 사실은 그 전날밤 다른 캠퍼들이 참외 서리를 하여 동네 사람들이 특별경계를 서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곤 했다.

그 밖에도 자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구슬 따먹기, 말 타기, 기마전 등 까맣게 기억의 한구석에 밀쳐져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한참의 시간을 길질대며 보냈다.

나는 그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학교에 거뜬히 합격하여 약간 놀랐었다. 훗날 그가 대기업의 중역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서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은 2년전에 암 진단을 받고, 여러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치료가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가만히 병상에 누워 있자니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 같이 뇌리를 스쳐가는데 내 생각이나 서 수소문하여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숙연해져서 그럼 그간 여러가지로 고통도 많이 받았겠구나 하며 위로를 하려고 하니 그는 그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어린시절의 이야기를 하며 추억에 잠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듯했다.

다시 전화 하마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 놓았는데 며칠 후 전화를 하니 그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화가 정현웅(1911-1976): 냉전의 또 다른 피해자

“War is just a male version of dressing up - Louis Glueck”

조 중 행 (69, 시카고)
홍부외과, 전-분당 서울대 심장센터장

서울에 있는 몇 년간, 가끔 국립 현대 미술관의 기획 전시들을 가 볼 기회가 있었다. 초창기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었으나, 냉전기 오랜 세월 금기시되었던 월북 미술가들의 남아 있던 작품들은 요즘 대중의 눈길을 끌며 작품 자체의 순수한 예술적 가치와 그 뒤에 숨어있던 이야기들로 우리가 겪어온 민족적 불행과 슬픔을 상기시켰다. 특히 남한에 남아있던 가족들과 수집가들에 의해서 소중히 숨겨 보관되었던 소수의 이런 작품들, 경향도 만석꾼 집안의 자제 이래대, 이여성형제의 작품, 유럽에서 작품이 발견된 배운성 작품, 서울 미대 교수를 지낸 김용준, 나의 모교 미술교사였던 김주경 등등 - 그중에 특히 나의 관심을 끈 작품 중의 하나가 화가로 또 삽화가로 더 알려져 있던 월북작가 정현웅의 유일한 유화 작품 ‘소녀’(1928 - 국립 현대미술관 소장)도 있었다.



우리 세대의 친척, 친구, 동창들 중에는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부모님, 형제를 잃거나, 납치, 월북, 등등 이산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던 분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뵈은 적이 없었던 한국 영화 역사의 제1세대 감독, 나의 장인 박기채 선생도 6.25 전쟁시 납북된 그중의 한 분이지만,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볼 때 내 주변의 친구들 중 여러 사람이 흩어지며 밑에서 성장한 슬픈 시절이 있었음을 안다.

얼마 전까지 시계탑에 자주 좋은 글을 두고 해오시던 고 정유석(64년 졸업) 선배의 아버님 정현웅 화백도 한국 미술사에 큰 위치를 차지할 만한 그 업적이 최근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가끔 시계탑에서 읽은 글 외에는 개인적으로 정 선배를 잘 모르지만, 본인이 생전에 아버님을 이야기를 이 매체에 소개하여

기록으로 우리 서울 의대 동문들에게 남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행히 남아있던 유일한 작품 ‘소녀’를 가족들이 국립 현대미술관에 기증하신 듯하고 유족들의 여러 방면의 노력으로 정현웅 화백의 업적들이 요즘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일제 강점기에 경북 고등학교(제2고보)는 일본인 실력과 미술 교사(야마다 신이치 山田新一, 사토 구니오 左藤九二男)들의 영향으로 현대 한국 미술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많은 화가들을 배출하였다. 요즈음 소품까지 수억 대를 호가하며 고가 경매, 수집 열풍의 중심에 있는 장욱진, 이대원, 고바우 김성환, 유영국, 권옥연, 심형구 화가 등이 경북고 출신으로, 이런 분들 보다 앞에 서있던 분이 정현웅 화백이다. 근대식 미술교육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한국의 청소년 공교육 과정에 투입된 일본 최고의 미술학교 동경 미술학교 출신 전공 교육자들은 당시 서울 화단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많은 제자들 - 즉 미래 한국 화단의 인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현웅은 경북 고교생으로 1926년 조선 미술전에서 ‘고성 古城’이 입선된 후 가와바타 미술학교에서 수학하다 건강 문제로 귀국 - 후에는 특히 신문 삽화, 잡지, 표지화 등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하였지만 남아있는 실물 작품은 매우 드물다.

특히 해방 직후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 특히 서울대 개교(국대안 반대 투쟁 시기)와 북한의 김일성 대학 개교 전후 및 남북 협상 시기와 6.25 때에 남한 출신의 학자(경의전, 경성 제국대 출신의 학교수 포함), 예술가들이 스승, 제자 사이의 인연, 우정, 자의반 타의 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북으로 간 역사가 있다. 극심한 냉전기를 거치며 분단은 이제 영구화되어 버렸나?

2차대전 후의 세계 정치, 냉전의 판세를 잘못 판단, 성급한 유혹에 빠져 실패한 6.25 전면 -전쟁을 시작하여 수많은

동포의 인명 살상, 재산 파괴, 수많은 5천 년 민족 문화유산 소실을 가져왔고, 이산 가족의 슬픔, 분단의 고착화라는 역사적 결과와 그 실책에 대해, 정치가 김일성 개인은 무한 책임과 민족적 죄인의 명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특히 문화사적 측면에서.

6.25 전시, 서울 점령 후 서슬 퍼런 공산치하 석 달 동안 서울에 남아있어야 했던 지성인들의 행동을 지금의 잣대로 쉽게 판단하기는 힘들다. 당시 남조선 미술동맹 서기장을 지낸 정현웅은 9.28 서울 수복 시 남한에 부인과 가족들을 남기고 미술가 김용준, 소설가 박태원 등과 같이 월북 - 영원한 이산가족으로 1976년 북한에서 서거하신 듯하다.

정신여고 음악교사로 많은 제자를 길러낸 그의 부인, 피아니스트 남궁 요안나 밑에서 성장한 정유석 선배와 성공한 동생들 및 유족들의 노력(정현웅 기념사업회)으로 화가 정현웅은 이제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화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출판문화사 속의 삽화, 장정 분야의 발전에 대한 업적과 월북 후의 작업(고구려 벽화의 모사 기록 작업 등)과, 북한에 남긴 작품들 속에 남아 있는 업적들은 이제 대한민국 미술계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고, 드문 자료이지만 이제 예술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아서, 사라져 가고 있는 민족 문화에 대한 그의 애정(아래 그림, 북한에서의 작품: 거란 전쟁 - 1960년 수묵화 260x160 / 실뜨기 - 1966년 수묵화)을 이야기해 주며 우리를 숙연케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반 매체, 저술 도

서(정현웅 전집), 미술사 학계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제 화가 정현웅의 업적이 일반 대중 및 미술사 학계에 점점 더 알려지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아시아의 조그만 약소국가로 격랑의 세월을 극복해온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한국인들이 이루어 놓은 현대 문화-예술적 활동과 그 성취의 역사는 이제 남한만의 좁은 영역을 벗어나, 북한 내의 예술적 업적을 포함, 미국 이민사회 등 및 세계 각국에 퍼져서 활동해온 한민족 모두의 문화적 유산까지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되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대합실 한구석 - 1940 유채, 원작 없음



친구 백석의 시 삽화, 1938, 잡지 여성



1943 독섬 - 오른쪽 아래 정유석 선배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사계절은 각각 특징이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봄을 좋아한다. 봄에는 새싹이 트고 얼어붙었던 강물도 녹기 시작한다. 산천이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동백꽃처럼 겨울에 피는 꽃들도 있지만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매화꽃이다. 이곳 남가주에는 1월 중순이 되면 어김없이 매화가 피기 시작한다. 예전의 동양 화에는 눈이 덮인 매화나무에 작은 새가 매달리듯 앉아 있는 것도 있었다.

그다음에는 한국에서는 개나리, 진달래꽃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목련화가 피어난다. 나무 중에는 벚꽃 나무나 과일나무처럼 꽃부터 피는 나무들이 많다. 그런 나무들의 특징은 꽃이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Magnolia라고 불리는 목련화의 꽃은 크고 화려하다. 대부분 분홍색이고 흰색도 있으며 붉은색의 자목련은 가장 인기가 있다. 봄우리는 여인의 입술연지 모양이지만 얼마 안 있어 둥근 모양의 꽃으로 변하고 꽃잎들이 벌어지면서 1-2주 있으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계속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꽃잎들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것을 연상케 한다.

봄이 오면

나 두 섭 (73, 남가주)



활짝 핀 목련 꽃들을 밑에서 하늘 쪽으로 바라보면 꽃잎이 하늘을 뒤덮은 듯하고 그 아름다움은 마음을 황홀하게 하며 어디선가 '목련 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는 사월의 노래가 들려올 듯하다. 꽃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무미건

조할까? 장미 같은 화려한 꽃들이 많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중의 하나는 야생화다. 누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도 넓은 벌판에서 솟아오르는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의 수많은 꽃들. 금년에는 비

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 야생화는 대체로 꽃이 작다.

그리고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래도 꽃으로 갖출 것은 다 있고 무리를 지어 피어나고 종류도 다양하다. 흰색, 노란색, 오렌지색, 보라색, 분홍색 때로는 붉은색도 있다. 누구의 보살핌 없이 대자연에서 피어나는 이 야생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의로움을 자아내게 한다.

꽃은 아름답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그렇게 디자인했는지 신비스럽다. 색의 배합도 감탄할 만하다. 그래서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러 나간다. 사진 찍는 무리들에 합류하여 나도 캘리포니아 Arvin으로 출사를 나갔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 30분 정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곳이다. 좀 생소한 곳이지만 넓은 들판에 야생화가 만발하게 피는 곳이고 푸른 들판과 구름이 어울린 것이 스위스의 경관을 연상케 한다.

또다시 찾아온 이 봄에 집에서 좀 멀리 떠나서 잠시 만이라도 자연의 품을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 봄도 빨리 지나가고 세월도 또한 그렇게 지나간다.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나가기 전에 감상이라도 하였으면 한다.

사진: Arvin, CA



천양곡 (69, 시카고)

확증 편향이란 심리학 용어가 있다. 사람마다 자신의 신념과 경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떤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견이 형성된다. 이런 요소들을 간과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 것은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확증 편향이다.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그중 하나로 각양각색일 뿐이지 누가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다.

“동성애자는 지옥행이다.” 몇 달 전 어느 현역 보스턴 야구선수가 자신의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밝혔던 내용이다. 개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6장 9절 성경 한 구절만을 인용하여 일반화한 것이 절대적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은 글썽하다.

지난 12월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은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성공회도 주일 예배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황의 이번 담화는 기존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어긋난 결정으로 가톨릭 교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성공회 선언 역시 교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개신교 목사들과 보수 가톨릭 사제들은 교황의 담화와 성공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근시안적 의견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별 차이를 해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생물학적 성별이 같은 사람끼리 무언가에 서로 끌리는 감정이 동성애이다. 심리적 개념으로 성적 지향의 한 표현이다. 서로의 끌림은 신체적 매력, 사회적 역할, 학문적 추구 등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종교, 특히 기독교 개신교는 대체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받을 들여놓는 것을 꺼린다. 일단 교회에 들어와도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라고 권면한다. 조건부 받아들임이다.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으로 믿고 있는 동성애자들은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모두를 귀한 생명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죄인과 악인 모든 사람에

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구약, 신약 총 66 권 속에 동성애에 관한 언급은 8-9개뿐이고 사랑과 배려에 대한 것은 백 개가 넘는다. 기독교의 근본 신앙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다. 지금은 예수적인 교회가 드물다, 대형 교회 성직자들 그리고 잘 믿는다는 교인들의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특히 보수 개신교가 일반인에게 호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지구촌에 모습을 들어낸 이래 동성애는 존재해 왔다. 생물학자에 의하면 동식물 세계에 모두 일정한 비율로 동성끼리 사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 사회 또한 전체 인구 수의 대략 5%가 동성애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천성(Nature)에 가까운 자연의 현상이다. 동성애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땅 어디든 잡초가 자라듯 자연은 오히려 소수를 받아들여 생태계의 평화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동성애는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지구촌의 존재와 함께 간다는 얘기다. 고대 문헌에 나와 있듯 원시 시대에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초기 로마 시대에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도 되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4세기 후반부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심해졌다. 특히 중세에 이르러 이성애를 사회규범으로 채택하자 동성애자들은 자연히 죄인이 되어버린 셈이다.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거의 300년 이상 동안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마녀로 몰아 참혹하게 고문한 뒤 마녀임을 고백하게 만든 후 종교재판을 통해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는 비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동성애자들을 하느님에 대한 신성모독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지만 현대에 와서도 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나치 정권은 동성애자들을 가스 수용소로 보냈다. 지금도 대다수의 종교단체는 물론,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미워하고 기피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동성애자에 대해 지은 죄를 사죄하기는 커녕 아직도 앞장서서 동성애를 핍박, 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과 문화의 발달로 동성애에 대한 생물학적 개념과 근거가 알려지며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퍼지고 있다. 정신의학은 이제 동성애자를 이상한 사람이나 병자로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자랄 때 성호르몬의 변화나 무슨 다른 이유로 강한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그들이 출생 후

보고, 듣고 학습하는 양육 과정에 무슨 계기로 동성애 성향이 발현된다고 한다. 바둑에 정수나 악수가 없는 것처럼 각자의 삶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왕도는 없다.

미국 사회는 1960대 중반에 들어서야 동성애자를 비롯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 운동이 일어났다. 뉴욕 그리니치 지역에서 수 천명의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정신의학도 1969년 동성애를 정신병 진단에서 삭제해 버렸다. 지금은 미국의 여러 주정부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 차별 금지와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학교에서도 성교육 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가르쳐 준다. 또한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종교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그들과 스스럼없이 대하고 함께 생활한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영적 성장을 앞세워 교권 확대를 위해, 보수 정치 단체는 선거투표를 의식하여 동성애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 반대자들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합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창조 질서를 강조한다.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다. 그러나 성경, 특히 신약은 예수님의 은유 상징적 표현이 많아 다양한 번역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단어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성찰의 힘이 필요하다. 성서에는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구절보다 제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이 훨씬 많이 적혀있다. 성경 구절의 한 획, 한 글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시 쓰인 성경 구절도 꽤 있다. 일부 신학자들은 2000년 전에 쓰인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지적한 것이지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반대론자들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1980년대 초의 에이즈(AIDS) 발생을 예로 들어 동성애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공포심을 퍼트린다.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한 주요 원인은 윤리 도덕의 타락과 신에 대한 불경 때문이었다. 유독 동성애만 탓할 일이 아니다. 에이즈 감염자들도 절반 이상이 약물 중독이나 수혈을 받은 이성애자들에게 더 많았다. 최근에 만난 어느 젊은 한국 교인은 동성애자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는 소수 동성애자에 의해 지구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끔 소수를 통해 세상은 바뀌어졌다. 하지만 소수는 항상 다

수에 밀려 차별을 당해 왔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성 개념을 자랑하거나 선전하며 영웅 취급을 받으려는 태도는 용납이 안 된다. 동성애적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동성애자가 되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용히 자신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정책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반인과 종교인들도 그들이 죄인도 아니고 서로 다를 뿐임을 인정하고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불리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 성소수자들을 죄인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기독교 사상이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설령 동성애자가 죄인이라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짓값은 치러 주셨을 것이다.

보수 종교계는 영화와 신문, 잡지, 소셜 미디어와 같은 언론매체들이 성문제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외친다. 사탄의 늪에 빠진 청소년을 구해야 한다고 통성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알다시피 세상과 세대는 변하고 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습득으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다. 서로의 의견을 개방하고 포용하는 다양성이 요구되는 세상이다. 종교의 다양성, 성문화의 다양성도 도도히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끝으로 종교적, 사회적 차별과 멸시, 소외 당한 삶의 풍파에 억눌려 고통과 분노, 좌절을 이기지 못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 삼아 항의한 동성애 환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잘 인도해 주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게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다.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모두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서로 등을 맞대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리셋(Reset) 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중한 피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고 말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누가 힘이 센가에 달려있다.

만일 러시아가 미국보다 힘이 더 커지면 알래스카를 다시 자기 것이라고 우길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였다는 역사를 길게 이야기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알래스카 역사도 들먹일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크림반도가 누구 것이 되느냐도 누구 힘이 강한가에 달려 있다. 남지나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도 힘이 커지자 하는 소리고 대만도 결국은 힘에 의해 임자가 정해질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는 기름을 뺏으려는 세력과 싸울 힘(원자무기)이 없어 죽임을 당했다.

김정은도 약의 축의 하나이나 '다행'이 뺏어갈 기름이 없고 힘(원자 무기)은 있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정의는 아무 데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다. 오로지 힘만이 정의다. 알래스카 이야기도 힘에 관한 이야기이다.

러시아는 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을까?



이희백 (61, 시애틀)

내가 1972년 알래스카를 간 다음 해 3월 말에 Seward's Day라 하여 주 공휴일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날을 기념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러시아는 어떻게 알래스카 임자가 되었고 왜 미국에 팔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1968년에 알래스카에 기름이 발견되어 들쭉이던 때라 러시아가 판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1867년 3월에 러시아로부터 7백20만 달러, 에이커 당 2센트를 주고 알래스카를 샀다. 이 세기의 부동산 거래를 성공시킨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쓸데없는 '어름 덩어리'를 샀다 하여 국민들의 빈축을 받았고 Seward's Ice-box, Seward's Folly란 놀림을 받았다.

내가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임자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다. 당시 유럽인들은 '미개지'는 누구나 먼저 들어간 자가 임자라고 자기들끼리 정하고 있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남미를 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다투게 되자 범왕 알렉산더 6세에게 중재를 요청해 370 경도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

투갈이 차지하도록 했다. 이 조약을 Treaty of Tordesillas 라고 한다. 원주민이 몇 천년 전, 또는 몇 만년 전에 신대륙을 '발견', 살아왔다는 사실은 무시되었다.

알래스카에는 러시아인들이 베링해를 건너 '제일 먼저' 정착함으로써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임자가 되었다. 주로 수렵을 해 모피를 수집해 살았는데 모자를 만드는 비버(Beaver) 가죽이 가장 인기 품목이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러시아는 땅 위에 있는 것, 주로 모피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남획해서 품귀해져 알래스카 쓸모가 줄었다. 그리고 땅속에 있는 광물들을 찾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소유했으나 남에게 빼가지 않을 힘이 없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뺏으리라 짐작한 세력은 당시 가장 강력한 영국이었다. 신생 국가인 미국은 힘이 없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영국에 빼앗기기 전에 한 푼이라도 받고 파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팔 대상으로 미국을 택한 것이다.

독도가 누가 주인이 될까 하는 것도 힘에 달려있다. 일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주인이었소 했잖아 그들 힘이 크고 우리가

덧없음, 우리 일상의 향기

덧없음이란 거 그게 바로 우리 일상의 향기 아닌가?
Is not impermanence the very fragrance of our days?
- 라이너 마리아 릴케 from Wild Love



김창남(69, 대뉴욕)

달라이 라마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하는 거라는 소위 찰나 무상이란 걸 설명한다. 찰나는 순간을 말하는 비유이지 구체적인 기간을 말하는 건 아니겠으나 구글에 의하면 1/75 초, 손가락 한번 튕기는 시간(一彈指時)이 65 찰나란다. 순간순간 우리는 죽는 거고 순간순간 새로운 우리가 태어난다는 그 래 순간순간 교체된다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절멸설(annihilation-ism)로 無常의 理解/해석 중 하나란다.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듣겠다. 순간순간 우리는 죽고 순간순간 새로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게 아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진리인 것 같기도 한데 실감이 안 난다. 매 순간 “어 내가 지금 바뀌네” 하고 의식할 수 없지 않나? 순간순간 우리가 교체된다는 건 우리 의식의 범주 저 너머다. 하여, 이거 말장난하는 거 아냐하는 불경스러운 생각마저 기어 들려고 한다.

뭘 말씀을 하시는 건지 헤아려 보려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 본다. 햇빛이 굴절되는 아침이슬을 보면 고 거 참 영롱하구나! 하긴 했어도 그 영롱함이 사라지는 걸 아쉽다 한 적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더구나 그걸 생자필멸까지 연계시켜 본격적은 없다. 신록이 결국 낙엽이 되어 떨어지면 그저 그러나 보다 했지 성자필쇠(盛者必衰)까지는 가지 않았다. 로제 바딤 감독의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하였다”에서 빨랫줄에 널어놓은 빨래들 사이로 힐끗힐끗 보이던(보여주던) 감질나던 나신(裸身), 싱싱한 젊음과 섹스를 내이팜 탄처럼 뜨겁게 폭발시키던 브리짓트 바르도, 그 바르도의 조글조글해진 얼굴(사진)을 보는 순간 세월이란 놈 참 잔인하구나, 무자비한 놈! 까진 했지만, 그저 거기서 끝난 거지 더 이상 철학적 종교적 유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철학적 사고나 영성(靈性)이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 내 저 남자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어 했던 남친도 결혼, 몇 년 간의 실직, 잇따른 술주정, 몇 차례 두드러 맞은 후엔 내 눈이 빼였었지 가 되더라는 내일 가게를 서너 개 가진 여사장님의 하소연, 세상만사 변하기 마련이라는 그녀의 절실한 경험, 정확한 관찰도 그저 직업적인 귀로 들었을 뿐, 즉 인지적(cognitive) 레벨에서의 공감(empathy)은 있었으나 마음속으로 가슴 아파한 것 같지는 않다. 정서적(emotional) 공감은 일어나지 않은 거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후 없다는 뻔한 말 -뻔하지 않은가? 강물이란 게 계속 흐르게 마련인데, 끊임없이 새로운 물로 바뀌는 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나-을 했다고 전해지는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도 달라이 라마의 찰나 무상과 상통하는 듯 싶다. 무척 아쉬워했던 듯 계속 물어댔다지 않나? 그래서 우는 철학자란 쪽팔리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전해진다.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면 어때서 같은

강물 어쩌구 하며 알쏭달쏭하게 비틀어 말하는 건가?

“이 또한 지나리라”는 중세 페르시아 현자(수피 Sufi 시인)들의 말은 흔히 굳은 일에 대해 쓰인다. 주말이 불쏘시개처럼 확 사라지는 건 부당하지만 무한정 지속될 것만 같은 마눌님의 노여움도 결국은 지나가고 만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에는 공감한 적이 많다. 덧없어서 아쉽다 하는 면보다는 덧없어서 다행이다 하는 뉘앙스가 더 강하다.

세상사 좋은 일보다는 궂은일이 더 많지 않은가. 그리고 보면 덧없음이란 거, 한탄해야 할 일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일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면 우리 사는 거 버터 나가기 힘들리라. 한탄하건 환영하건 세상은 순간순간 변한다.

내가 무슨 소린지 알아듣길 말건, 세상만사 덧없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을 달라이 라마, 헤라클레이토스, 페르시아 수피 시인들 모두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로 프로이트의 짧은 글 덧없음(英譯은 덧없음에 관하여 on Trasience)를 읽는다.

날씨 기차게 좋은, “환한 미소로 반기는 듯한” 어느 여름날 프로이트는 과묵한 친구(Lou Salome*라고 추정)와 아직 젊은 하지만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시인(Rilke라고 추정)과 산책을 나간다. 시인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찬탄을 마다 않는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 겨울이 오면 결국 소멸되고 말리라는 생각에 낙담, 그 아름다움을 즐기지는 못한다. 프로이트는 시인의 낙담을 반박한다. 아름다움이란 그 지속시간에 구애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루만 피는 꽃이라고 그 아름다움이 덜해지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 때문에 가치가 증가하는 거고 순간순간은 더욱 소중해지고 찬란해지는 거라고 희귀성의 가치라는 시장논리까지 도입한다. 그리고 모진 겨울을 겪고 다시 피어나는 백합처럼 자연은 다시 돌아오게 마련인 거 아니냐고 덧부친다. 시인은 감성을 말하고 있는데 프로이트는 온통 이성이다. 감성과 이성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어떤 게 옳은가? 예술적 직관인가, 과학적 이성인가? 정신분석이란 문학인가 과학인가? 프로이트를 평생 좇아다니며 괴롭힌 주제란다. 산책하는 동안에서마저 시인에게 시비를 건다.

기실 이 둘은 논쟁을 했던 건 아니다. 산책길의 대화는 서로 존경, 존중하는 두 사내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의 열띤 대화였다고 전해진다. 스스로 갖고있던 질문을 해본 거지 시비를 건 건 아니다. 시인의 답은?

“덧없음이란 거, 그게 바로 우리 일상의 향기 아닌가요?”

릴케의 시, wild love,의 첫 연(聯)이다. 저는 과학적 이성이 아닌 직관에 의존합니다 하는 간결하고 명료한 반응이

다. 릴케는 덧없음을 아예 냄새로 변용시키는 마술까지 부린다. 덧없음을 직접 호출, 냄새까지 맡아내고 있는 거다. 꽃이나 향수, 김치, 비 오는 날 시내버스 안의 시골 아낙이 안고 탄 한자루 마른 새우(오, 그 고약함) 등 구체적인 존재들의 냄새는 나도 맡을 수 있다. 아니, 거기까지가 내 한계다. 현대, 덧없음이란 추상명사의 냄새까지 맡다니 시인의 코는 역시 남다른 가보다.

번뇌가 깨달음(보리菩提)이 되는 게, 괴로움이 별빛이 되는 게, 대승불교의 지향점 아닌가. 일상이란 번뇌에서 깨달음의 향기를 맡는다는 건 이견 참 코(鼻) 하나 기차다!

내 울부짖음을 뒤라서 천사들의 계열에서 내려와 내 목소리를 들어줄까? (두이노의 비가)하며 한참 빼딱하던, 투덜거리던, 릴케에게 일상의 향기를 맡는 코가 있었다니!

이 시인은 이 풍성한 여름의 壯觀에 빠졌다가는 그 장관이 결국 소멸될 때 겪어야 할 애도(예상되는 애도)에 들어 다칠 고통의 생각에 움츠려 드는 거라고

프로이트는 설명한다. 그리고 애도의 고통은 결국 끝나게 마련인 거라고 부연한다. 즉 장래에 들이닥칠 별것 아닌 애도의 고통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않는 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논리다. 시인은 설득되지 않는다. 어찌 이성이 감성을 설득하겠는가? 둘은 이질적인 것들인데.

중학교 때, 쥐약을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이 한 많은 세상을 억울하게 하직한 강아지 “하루”를 사촌 형과 함께 옆산 적당한 곳에 불법 매장한 후 나는 삼십 년 이상 개를 집에 들인다는 엄두를 못 냈다. 개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다. 정서적 상처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이거늘. 직접 겪은 이런 경험으로 나는 시인과 동의한다. 애도의 고통은 별것 아닌 게 아니다. 프로이트도 나중에 의견을 바꾼다. 오래 지속되는 거라고.

이 여름길에의 산책이 있던 이듬해 일차 세계대전이 발발. 전쟁이 훑어간 자연은 파괴되었고, 모든 문명의 성취들은 부서져 버렸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부심,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는 이성적이고 오랜 세월이 걸친 교육으로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야, 물어뜯으며 싸우는 짐승하고는 달라 하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자못 낙관적이다. 골짜기의 백합이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듯 우리들도 새로운 문명을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욱 훌륭하게 쌓아 올리리라 하고 이 낙관적인 프로이트는 예견하고 있는 거다. 예견하는 건가 아니면 그저 희망 사항인가? (이십 년 후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서 출간하며 보다 비관적으로 되기 전의 낙관적 프로이트다.) 덧없음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까지 든다.

서울 분꽃



김병오(69, Haymarket VA)

저편에 스며
우리의 남은 꿈도 한 겹 피우리
분꽃 핀 저녁 노을 빛 배경으로

뱅뱅사거리 언덕길 오르다
구름 모퉁이 작은 화단에 핀 서울의 그리움 만나
우리 멈추어서 깊이 향기를 애무했지
빌딩 숲 폐지 चु는 여인이 문득 쳐다보았지
대리석 층계 지나 종종히 사라지면서

우리들의 주소 폐허에 묻히고
분꽃 씨 몇 알 여행길 지갑에 남아
그 저녁 여기 피었고
세월 또 가고
우리 흔적 서쪽하늘 별빛으로 질 때
빠아픈 異國의 삶 거두어지고 너도 가고 나도 가면
누구의 저녁으로 이 분꽃은 피어나리

못잊을 사랑 저물어 조각달 뜬 간이역에 서 있네

분명 내 것이었으나 내 것이 아니었던
서울 분꽃이여.

사상 초유의 전쟁, “대포가 죽음과 재앙을 소낙비처럼 퍼부어대던 전쟁”으로 피폐 될 대로 피폐 된 사람들에게 달라이 라마의 무상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울음은 너무 잔인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이 글은 괴테의 나라(Das Land Goethes)라는, 애국적인 기념 도서(Patriotic Memorial Book)라는 부제가 붙은 문집,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간행된 문집을 위해 준비한 글이라는 걸 고려하면 다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 희망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도 있겠다.

아니다. 애국심에서도 민중을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다. 프로이트는 독일에서 면면히 내려오던 특히 그가 숭배하고, role model로 삼던 괴테를 거쳐 내려오던 덧없음과 영원(feminine Eternity)의 알쏭달쏭한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종교인은 깨달음의 관문으로, 철학자는 울음으로, 현자는 이 살벌한 세상이 우리에게 내린 선물로(지나가니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분석가는 시장가치를 높이는 효용성으로, 시인은 일상의 향기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맞서고 있는 이 덧없음, 만민에게 공평무사한, 동시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덧없음이란 작자에 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지?

대처는 무슨 대처야, 그냥 겪는 거지! 일상에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축복이 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 루 살로메- 당대의 여성 지식인. 니체(17년 연상), 프로이트(5년 연상), 릴케(14년 연하) 등 외에 여러 지성들과 지적 내지는 로맨틱 관계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도플러 현상(Doppler Effect): 키스는 벼락처럼 다가와 안개처럼 사라진다.
공자님: 아침에 일어나 키스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한국인: 사촌이 키스하면 배가 아프다.

잉꼬 부부의 비결

결혼 60주년을 맞은 노 부부에게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신데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럼, 그건 아주 간단하지, 사실 우린 신혼 때 작은 일은 모두 아내가 하고 크고 중대한 일은 내가 하기로 약속하고 그대로 죽- 지켜왔거든, 그게 비결이야.”
기자가 다시 물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지요?”
“흠-, 예를 들자면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이나 애들 학교 문제를 비롯해서 이사갈 집이라든가 등등, 작은 일은 아내가 결정했고 나는 지구 온난화라든가 중동 평화문제나 테러리즘 등, 큰 일에 관련된 것들을 결정했지.” (이덕승)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이 미장원에 다녀온 아내를 보고 갑자기 화를 벌떡 냈다.
“이봐, 나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단발머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러는 당신은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머리가 된거예요?”

Kiss에 관한 짧은 상식

다윈(Charles Darwin): 뽀뽀가 진화하면 키스가 된다.
뉴턴(Isaac Newton): 키스했던 사람은 계속 하려고 한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키스하는 사람의 시계는 안하는 사람보다 빠르다.
도미노 현상(Domino Effect): 옆자리의 사람이 키스하면 나도 하고 싶어진다.

아버님의 일기 (3)

소녀의 노래와 어여쁜 눈동자



서 윤 석 (68, 버지니아) 정리

나는 95일간의 공산치하에서 세 번이나 사선을 넘었다. 내 나이가 50인데 이제부터는 텅으로 사는 목숨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 나의 생활은 어땠는가 되돌아보니 남의 체면과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여 참다운 사회인으로, 신앙인으로, 교육자로서 모두 부끄러운 삶이었다. 앞으로는 창조주의 섭리에 맞게 일을 실천하면서 굳세게 살자고 다짐했다.

나는 95일 만에 다시 찾아온 효자동 관사 6호에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9월 30일 아침이 되었다. 이웃들이 찾아오고 기적에 가까웠던 피차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그날 채규항 형이 헬레벌떡 찾아왔다. 그의 두툼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4-5분간을 놓지를 않았다. 피난 중 관악산에서 헤어졌던 정치성이 강한 친구다. 그는 여러 친구들이 나처럼 고생을 안 하고 무사했다고 한다. 그자신도 부산까지 피난을 갔었다고 하면서 담배 두 packs 내민다. 아내는 그가 인절미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급히 시장에 나가서 찰떡을 사서 대접했다. 아직 자기 처자식이 있을 집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릇을 다 비우고 곧 떠났다. 친구의 안부를 생각하면서 나부터 찾아온 것이었다. 정부는 대거 서울로 복귀했다.

소문에 검찰은 부역자들을 색출한다고 했다. 나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검찰은 서울에 잔류했던 시민들을 일단 모두 부역자로 규정해놓고 그 신분을 조사한다라고 방침을 세웠다. 이 말에 나는 경악하고 이 정책을 경멸했다. 대통령부터 시민을 버리고 도망갔던 일, 시민들에게는 라디오방송으로 동요하지 말라고 허풍을 떨어 피해를 주었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분노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커녕 살아남은 민주시민들을 부역자로 단정하다니 말이 안 되었다. 한강 다리를 폭파한 최창식 대령은 너무 일찍 했다고 사형을 당했다. 불행한 상황이다. 그의 명예는 1964년 10월 23일 그의 부인의 재심 청구로 무죄가 되었지만, 인민군의 남하를 막으려는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로 인하여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난을 못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둘째 아들 성일에게 군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왔다. 몸이 허약했던 아이라 후일로 미루고 싶었지만 본인은 '내가 나라를 지키러 나가야지요'하면서 그날로 입대했다.

10월 초 김활란 박사가 효자동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내가 이화여자대학교 상무이사직책을 맡고 있었을 때다. 그녀는 부산 피난 중에 정부의 공보 처장이 되어 정부와 같이 각료의 한 사람으로 환도했다. 그녀는 UN 군 남자 장교들이 입는 속에는 털을 댄 국방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 우선 피난을 못 가고 고생했던 나를 위로하고 이화 대학의 재건 문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해방 후 양주삼 박사와 내가 주동이 되어서 건립 중이었던 과학관 건축을 계속하는 문제였다. 또한 그녀의 방문 목적은 공보처에 선전국을 설치하는데 그 선전국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현재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하여 그런 중임을 맡을 수 없다고 고사하면서 김상용 교수를 추천하니 그녀는 김교수는 창간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영자신문인 <The Korea Times> 책임자로 내정했다고 대답했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견보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니 더 연구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 그녀는 다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총

총히 헤어졌다. 이를 후에 다시 기별이 와서 나는 중앙청 2층 그녀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국무회의에서도 의논했고 대통령도 재촉한다면서 선전국을 발족시킨다고 했다. 더구나 유엔군은 워커 중장이 내린 38선을 월경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북진을 계속했다. 10월 10일에는 해주, 원산을 점령했고 곧 평양, 함흥을 점령한다면서 선전국 업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가 열정적이고 전진만 하려는 본인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 정치판의 모략에 걸리 것도 생각하며 재고를 또 건의했더니 나를 소심하다고 나무랐다. 나는 한편 공산당들은 항상 많은 자금을 선전비에 쓴다는 것을 알고 선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의 정치적 절차 문제는 접어두고 우선 이 절실한 시점에서 그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선전국장 중책을 맡았다. 김 박사 옆의 방을 하나 얻어서 선전국을 차렸다. 당시 중앙청에는 쓸만한 방이 극히 드물었다. 난방 시설이 없었고 유리창도 제대로 없었다. 그런대로 유능한 직원을 30여명 채용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우선 시내 각처에 전황에 대한 포스터를 붙였다. 이북 땅에 알리는 전단을 두 가지로 선정했다. 미수복지역과 수복지역을 구분하여 전단을 선정하고 붙이거나 뿌렸다.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 상황과 쫓겨가는 인민군에 대한 대응책과 도피 은신 방법을,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단에 인쇄하여 북한 땅에 군용기 편으로 뿌리게 했다. 10월 17일에는 함흥이 수복되고 19일에는 평양이 수복되었다. 얼마나 신속한 기쁜 소식인가! 우리 선전국에서는 성진, 청진, 나진을 비롯하여 삼수 갑산 해산 무산까지 골고루 지역별로 전단을 작성했다. 수복 전단을 국방부와 상의하여 제공했다. 신바람이 나는 하루하루였다. 그런데 10월 하순경이었다. 중공군 참전설이 정부 고위층에서 발설되었다. 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11월 초에는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났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김 처장이 또 부르기에 처장실로 갔더니 "대통령께서 평양, 함흥 등지로 초도순시를 떠나기로 되어있다고 선전국장인 나도 수행키로 되었다면서 수속 준비하라고 부탁했다. 군용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수속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공보 처장의 경질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정식으로 공보 처장 경질이 발표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당시 공식적인 정부 기관 명단에 없었던 공보처가 정치적 모략과 중상의 희생물로 된 것이었다. 기자들까지도 그 연출에 가담하여 국익을 위하여 성심과 열정을 다하던 김 처장은 그들이 억지로 만든 제단의 희생물이 된 것이었다. 나도 즉시 선전국을 해체하고 김 처장과 함께 공보처를 떠났다.

이 글에서 나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외교의 귀신이요 인사에는 등신>이라는 평에 동의한다. 평생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외국에서 일해서 국제정세에는 밝았다. 그러나 한국 내 사정에는 어두운 점이 많았다. 더구나 부인이 서양 사람이었으니 필요한 내조를 잘 받지 못했으며 주위에서 올바른 인물을 찾지 못했다. 고집이 센 그의 성격이 고분고분하던 아침뿐만 아니라 가까이 했다.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반민특위법을 권력으로 뚫어버려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해방 전날까지 일본 경찰의 주구 노릇을 하던 사람들

정부 요직에 앉아서 민족의 사기를 꺾었다. 철없는 이기봉 같은 사람을 후계자로 하려다가 수 백명의 학생들이 생명을 희생당하는 4.19 민주혁명을 거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실은 불행한 일이었다 그것을 훗 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1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전세는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서울을 떠났다. 결국 1.4후퇴가 시작되었다. 주자유군이 찾아왔다. 이임수 씨를 소개해 준다.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실 차비를 하시지요" 한다. 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 그는 인척 중에 해군 헌병감실에 근무하는 이병필 대위가 마련해주는 트럭이 한 대 있는데 전에 경찰서장을 지낸 박경림씨 가족까지 세 집 가족이 같이 피난 가자는 이야기다. 충심으로 고맙았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대가족이라 몸이 불편한 큰아들 휘용과 그 처와 손녀 한 명만 남게 하고 트럭에 온 가족을 태웠는데 자리가 부족하여 나와 지화와 정화는 나중에 따로 출발하기로 했다. 그 트럭이 떠난 후 과연 부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30분도 안돼서 서북풍이 불면서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다. 불안했다. 라디오에서는 지난 여름처럼 또 서울을 사수한다고 방송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도 12월 11일에 두 딸과 같이 떠났다. 전택보씨가 마련한 트럭으로 그 집 가족과 함께 탔다. 다음날 오전에 부산에 닿을 예정이었다. 전 사장은 떠나기 전에 종이쪽지에 적은 일본 주소와 일본 돈 몇 천 원을 주면서 "만일에 경우에 이곳에서 만납시다" 한다. 효자동 전자 중점 느티나무 밑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그는 당시 홍콩, 일본을 드나들면서 신나게 무역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공보처에 있었을 때 군사 1급 비밀에 맥아더 사령부는 유사시에는 유엔군이 일단 일본으로 철수했다가 재 상륙할 수도 있다는 것, 한국 정부도 제주도도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우리 트럭은 서둘러서 서대문을 지나 한강 쪽 다리를 건너서 부산으로 향했다. 경상북도 영천 부근에서 하룻밤을 인가에서 묵고 12월 12일 부산역에 도착하자 트럭에서 내렸다. 나는 즉시 아내의 중학교 때 친구이고 영생여학교 제자인 금강미장원을 하고 있는 김복녀 여사에게 전화로 먼저 떠난 내 가족들이 도착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우리 가족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나보다 육일 전에 떠난 트럭이 안 왔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 딸아이들은 그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됐다. 나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김 여사 집으로 갔다. 우리는 김 여사의 후한 대접을 받았다. 이들을 더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다.



피난민들의 거주지 부산 관자점

그 무렵 폭설이 전국에 내리고 있었다. 매일 차량이 전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다. 공비도 출몰하고 정국이 어수선했다. 속수무책으로 열흘이 지났다. 매일 경찰서로 부산 역전으로 신문사로 찾아갔다. 심지어 다방을 뒤졌다. 방황하기 시작했다. 속이 탔다. 신문기사는 중공군이 다시 서울로 내려온다는 나쁜 소식이었다. 서울을 떠난 지 20일이 가까워오는데 소식이 없었다. 주자유, 박경림씨 가족도 마찬가지로 터인데 그 사람들도 안 보인다. 걱정이 쌓이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었다.

12월 25일이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후에 나와 두 딸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마침 교회당에서 퍼져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렸다. 산란하던 가슴이 편안해졌다. 조물주의 자비스러운 손길이 우리 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위로라 할까 앞길에 광명이 비쳐오는 느낌이었다. 캐럴이 끝나자 우리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힘차게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넓게 열어주시고 환희와 광명의 빛을 주신 것일까? 마지막 4절은 정화가 독창으로 불렀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맑은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아련한 감정이 은쟁반을 적시는 옥구슬의 흐름 같았다. 창조주의 팔에 매달려 내 엄마 내 형제들을 찾아내라고 응석을 부리던 애절한 기도였다. 노래가 끝나자 지화가 젖은 눈을 껌벅이면서 '아버지 내일 내가 찾아 떠나겠어요.'한다. 신동한 일이었다. 정화의 노랫소리가 마음을 움직였다. 정화도 같이 울었다. 그 후 우리의 심정은 편해졌다. 그 노래가 우리를 감화시키고 평온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지화는 부산역으로 나가서 복상하는 기차를 탔다. 석탄을 가득 실은 기관차의 화물칸 꼭대기에 올라탔다. 마침 김능근 씨도 타고 있었다. 그런데 지화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에게 말도 안 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막연히 엄마와 형제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다. 어디인가 북쪽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대구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기차는 지화가 탄 지 세 시간 후에 떠났다. 나는 허탈한 상태로 숙소로 돌아왔다. 정화는 그냥 울고 있었다. "지화 언니 떠났어요?" 하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물었다. "그래 떠났지" 하고 나는 억지로 비교적 활달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번에는 엄마를 꼭 찾아서 같이 올 게다" 하면서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가지 않고 그 아이를 보냈는지 모르겠다. 당시 내 나이가 50이라고 늙은이 행세를 한 것이었다. 그 애가 떠난 후 우리는 김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점심을 먹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느라고 애썼다. 정화에게 나는 어제저녁에 합창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고 그때 그 노래가 유별나게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 노래가 구름을 뚫고 하늘에 올라가서 간절한 기도로 번졌단 말이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네 기도를 어여뻐 여기시어 네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지화 언니가 떠났지. 며칠만 더 기다리면 엄마와 동생들을 만나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 이것은 당시 나의 절실한 바람이기도 했다.

정화는 그때에 경기여중 1학년 아직 초등학교 티도 채 벗어나지 못한 13살이었다. 순진한 성격에 말 수가 적은 아이였다. 내 말을 들은 정화는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그러면 기다려 보아야지" 하고 일어서서 세수도 하고 방안을 정돈해 놓는다. 우리는 바닷가에 나갔다. 추운 편은 아니었다. 봄철 같았다. 바다는 잔잔하고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는지 물 위를 스치면서 춤추고 있었다. 어느 때나 자연은 위대했다. 바다는 소음과 인간의 번뇌를 떠나가게 한다. 햇살로 따뜻해진 바위에 앉아서 우린 가지고 간 만두를 먹기 시작했다. 즐겁기만 했다. 서로 말을 안 했지만 많은 말을 주고받은 것 같았다. 정화는 만두를 씹다가 "노래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아빠?" 하면서 물었다. 나는 즉시 "물론이지" 하면서 대답할 수 있었다. "눈을 감고 비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야, 아름다운 노래도, 어여쁜 춤도, 정성들이는 노동도, 열심히 하는 공부도, 모두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야."라고 말했다. "눈을 감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며 다시 묻는다. "눈을 감고 안감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신다. 눈을 뜨고 서서 <다음면에 계속>



낙엽을 읽다

수필가 김영애(남가주)

갈색 잎들이 우수수 흩어진다. 계절이 보내는 싸한 엽서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갈색 낙엽이다. 한여름 싱그럽던 초록 잎은 어느새 갈 빛으로 퇴색하여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추고 있다. 싸한 바람이 불자 우수수 눈물같이 떨어지는 낙엽. 가슴앓이 끝에 떨어지는 낙엽이어 선지, 그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웬지 슬프다.

나무는 한 일 없이 저무는 한 해의 안타까움과 후회, 허무하게 흐르는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을 떨구는지도 모른다. 고엽을 보고 있으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의 본질적인 삶의 의문과 의미가 절실해진다.

눈물이 되어 떨어지는 낙엽. 감정의 끝은 눈물이라 하였던가. 그것에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분노 같은 온갖 감정이 녹아 있는 듯싶다. 그래서일까 눈물을 흘리고 나면 감성이 순화되어 영혼이 맑아지고 세상이 투명해진다. 그것은 응어리진 감정이나 떨쳐내기 힘든 삶의 집착들을 비워주기 때문이라. 눈물은 아픈 감성을

치료해주는 약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고통이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라 하였다.

어찌 보면 나무의 눈물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갈색 눈물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푸른 나무의 영혼은 정화되고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눈물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가 하면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다.

갈 빛 낙엽에서는 커피 냄새가 난다. 커피는 감성을 촉촉이 적시는 갈색빛으로 고혹적인 향을 풍기는 매력을 지녔다. 싹싹하면서도 시니컬하게 허끝을 자극하다 마지막에는 고소한 맛을 여운으로 남기는 커피. 바스락바스락 낙엽길을 걷다 보면, 삶이 비록 싸하고 냉소적이지만 쓰디쓴 커피의 고소함과 같이 인생은 그래도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낙엽을 밟아가다 그것이 낯선 코스모스 사이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코스모스를 닮은 낙엽. 코스모스와 낙엽은 설레이는 그리움으로 감성을 적시며 영혼에 다가서는 가을의 얼굴들 아닌가. 한들 한들 바람결에 춤추는 코스모스는 가슴의 노란 꽃에 수많은 별을 품었다 해, 그 이름을 '코스모스'라 불렀다. 꽃의 의미가 우주라면, 갈색 낙엽에도 나름대로의 우주가 있다. 하늘의 해와 땅의 물을 합쳐 양분을 만들어 낸 푸른 우주는 여름내

초록 나뭇잎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흔적은 아직도 낙엽의 몸엔 '삶의 훈장'처럼 새겨져 있지 않은가.

귀 기울여 들어 보면 낙엽에서는 철새 소리가 들린다. 철이 바뀌면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리는 철새. 낙엽을 밟으며 먼 곳이 그리워지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것은, 떠날 차비를 마친 철새가 그것에 깃들여 있기 때문이라.

문득 고개를 들어 쪽빛 하늘을 보니 빨간 고추잠자리들이 허공에 가을 풍경화를 그리고 있다. 빨간 고추잠자리를 닮은 붉은 단풍잎들이 떨어지며 알 수 없는 형상들을 하늘에 그려대기 때문이다. 장난기 어린 바람이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리자, 고추잠자리가 된 단풍잎은 또르르 날갯짓을 하며 쪽빛 하늘에 커다란 원을 스케치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고추잠자리와 단풍잎. 슬퍼지는 가을을 곱게 채색하려고 둘은 빨갭게 몸을 달구어, 가을 한복판에서 흥겨운 풍악 놀이를 벌이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

푸르던 자신을 지워내 흠뻑이 된 낙엽. 세월은 나뭇잎의 영혼 속에 아집을 비우고 겸허함과 소박함으로 채워주려, 그렇게 만들었을 듯도 싶다. 누구라도 부담 없이 밟고 다니지만 매 순간 그 존재조차 의식 못하게 자신을 비운 흠이 아니던가. 어쩌면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으로 원래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임을, 세월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낙엽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한자리에 서 삶의 생로병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나뭇잎은 마지막 땅에 누워 흠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인생을 닮았다. 그래서인가 삶의 끝자락에 선 낙엽은 생명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낙엽 위에 누우면 까칠해진 내 삶이 몸에 단는 것 같아 고독해진 영혼은 청자빛 하늘 속에 깊어만 간다.

아무래도 낙엽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새겨져 있는 것 같다. 계절이 보내는 메시지가 갈색 잎에 적혀있는 까닭이다. 그것에는 "떨어지는 잎을 보며 삶이 무엇인가를 사유하고,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라. 사는 동안 주변 이웃에게 넉넉하고 따뜻하게 온정을 베풀어라"라는 사언이 빼곡히 적혀있다. 자기의 삶은 자신만이 지어 나가는 것이기에 의지 여하에 따라 그 빛도 다양한 낙엽 빛처럼 달라질 수 있으리라.

감성을 적시는 이브 몽팡의 '고엽' 노래를 굳이 듣지 않아도, 깊어지는 가을은 쪽빛 하늘 속에 풍요롭게 익어만 가고, 바스락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나는 흠뻑 낭만에 빠진다. 낙엽의 매력은, 죽었지만 가슴에 살아남아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낙엽 길을 걸으며 나뭇잎의 죽음에서, 인생을 관조하며 그 속에서 죽음과 삶을 생각해 본다. 죽음 속에서 삶을 사유하고, 삶 속에서 죽음을 사고하는 것은, 둘이 하나이기 때문이라.

- 필자: 김성환(71) 동문 부인

<전면에서 계속> 해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좋은 경치를 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눈을 감고 남들이 보는 데서 큰소리로 고향을 지르면서 떠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아. 언제 어디에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좋은 기도가 될 거야."라고 말했다. 내 말을 듣고 정화는 "그러면 나는 이다음에 음악과를 할까 봐"라고 했다. "음악과를 공부하고 기도 노래만 하려느냐?" 물었다. "음악도 하고 기도도 하면 좋지 않아요?"라고 대답했다. 정화는 과연 후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하트포드 커네티컷 Hartford, Connecticut에서 살면서 한인교회에서 주일마다 아름답고 정성이 가득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봉사하고 있다.

지화가 떠난 다음날 12월 27일 오후였다. 행방이 불명했던 온 가족과 지화가 대신동 우리 숙소로 들이닥쳤다. 애들은 서로 붙잡고 영영 울어대고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나는 어찌 된 영문인지 아내에게 물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12월 8일 서울을 출발하여 조치원역 바로 못 와서 전동역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났다. 근처 인가에 나누어 머물면서 운전수는 부속품을 구하러 서울로 떠났다고 한다. 17일 동안 운전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4-5일 후 운전수가 안 돌아오자 다른 차편을 구하고 있었는데 집지가 없었다. 그러다가 누구보다 발이 넓은 소식통인 주자유 군이 준비한 다른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 차 또한 대구에서 고장이 나서 여관에서 하루 묵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아침 화물차를 타고 올라온 지화가 기차가 더 이상 안 간다고 해서 기차에서 내려서 흑시 트럭이라고 이용할 수 없을까 하면서 잘 모르는 대구 시내의 길모퉁이를 거니는데 우연히 엄마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었다. 한편 엄마는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새벽에 혼자 나와서 언제나 차 수리가 끝나는 것을 확인하려고 같은 장소를 돌아다니다가 지화를 마주치게 된 것이었다.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다. 정말로 소설가가 꾸민 이야기 같았다. 두 모녀는 부둥켜안고 영영 울었다고 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자동차 수리가 쉽게 끝나서 부산까지 무사히 이렇게 도착한 것이었다.

전 가족이 다시 모여 피난민답지 않게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부산에서 1951년 새해를 맞았다. 그리고 일본 동양대학 동창으로 정답게 지냈던 김석문 형을 조상했다. 형이 6.25 직전에 별세한 것을 비로소 엇그제 알게 된 때문이었다. 그는 남해군 창전면 동대리가 고향이고 부친은 수 천석을 추수하는 부호로 소문난 구두쇠 어른이었다. 김형은 신학문에 열중하여 철학 면에 조예가 깊었다. 그의 동생인 김석균 씨는 상투를 틀고 한문학만을 숭상했다. 형의 부탁으로 나는 그때 그 석균 씨에게 신학문과 명치유신을 설명하면서 인식시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다음 해 방학 때에 다시 그곳에 들렀더니 그 석균 씨의 머리에서 상투가 없어졌다. 내가 타이른 공적이라고 김형이 좋아했던 생각이 났다. 김형은 얼마나 못한 남자면 소실도 못 두느냐고 부친한테서 핀잔을 받기도 했다. 그는 다소 염세적 성격이고 어찌 생각하면 철학가다웠다. 부친이 별세한 뒤로 대부분의 토지를 정리하고 해운업에 손을 댔다. 사업이 궤도에 오를 무렵 그가 예기치 못한 급성 질환으로 타계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1,023일 동안 수도이었던 부산 모습

정부는 1월 4일 주민들에게 피난을 하라고 공표했다. 정부도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나는 비교적 일찍 피난을 내려온 셈이다. 나는 뒤따라 온 친구들의 방문을 받았다. 하루는 이봉선 사장이 그 부인과 같이 찾아왔다. 몸이 반쪽이 되어 휘청거리면서 들어왔다. 단별옷을 입은 채로 겨울 동해 바다를 거쳐 살아왔다. 나는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이 사장과의 헤어졌는데 그것이 그와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는 나의 함흥 영생중학교 1년 후 배인데 졸업 후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함흥으로 와서 수산업에 투신하여 아주 성공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같이 흥남 창고주식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후

공산당에게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손이 되었다가 이번에 쪽배를 타고 남하한 것이었다. 그날 그는 나와 헤어진 후 거제로 갔는데 결국 폐결핵이 발병하여 그곳에서 몇 주 후에 사망했다. 그 부인도 정부가 서울로 수복 후 서울로 올라왔다가 얼마 후 사망했다. 모두 슬픈 운명의 장난이었다. 또한 나의 처제 임정복은 미군 함정 빅토리아호를 타고 아들 둘과 만식이 된 몸으로 거제도에 내려왔다. 함흥을 떠나기 전 그들의 큰 아들이 몸이 아파서 시어머님과 함께 후일을 기약하고 남아 있었다. 처제는 영생여학교와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해방전에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함흥에서 개업하던 이창종 의사를 만나 결혼했다. 전세는 날마다 달려져서 중공군이 계속 밀고 내려왔다. 나는 결심을 하고 이때에는 아주 멀리 제주도도 떠나기로 했다. 마침 김석문 형의 아들 김한수 군이 해운업을 계승하고 있었다. 젊은 사장으로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금파호라는 자기 회사의 배가 수일 후 제주도로 떠난다고 우리 가족을 잘 모셔다드리겠다고 겸손한 태도로 약속했다. 나의 학창 시절 때는 네 살 된 소년이었는데 벌써 사업가가 된 것이었다.

1월 15일 나를 제외한 9명의 가족은 금파호를 타고 부산을 떠났다. 우연히 채규항 형도 그 배를 탔다. 우리 가족을 잘 보살피 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유는 대구 달성국민학교에 있던 562 정보 중대 국군 부대가 남부민동에 있는 수산시험장 부근으로 이동해왔다는 이유에서이다. 둘째 성일이가 그 부대에 근무하고 있어서 우리가 제주도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당시 우편 체계는 믿을 바가 못되었다.

제주도행 배가 떠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30시간이면 제주도에 도착해야 될 배가 사흘이 지났는데도 도착했다는 전보가 없다고 선박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놀라서 회사로 달려갔더니 일기가 불순하여 하루쯤은 늦을 수 있지만 사흘이나 늦는 일은 없었다면서 제주도에 전보를 쳐보겠노라고 했다. 이틀이 더 지났는데도 행방을 모르겠다고 했다. 사장과 간부들의 얼굴은 흠뻑이었다. 누가 파선을 했는가 하며 걱정을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젊은 사장은 그 말을 한 사람의 뺨을 때렸다. 흥분한 탓이었으리라. 나는 대답해서 부두가로 나와서 걸었다.

그리고 금파호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다. 100톤의 작은 배에 정원의 3배가 넘는 승객을 태우고 떠났던 것이 생각났다. 얼굴이 붉그스럽게 술 취한 선장이 손을 포켓에 넣고 선장실로 올라가던 장면이 떠올랐다.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배에 무전기 한 대도 없단 말인가? 날이 어두워지자 저녁도 굶은 채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이불을 쓰고 잠을 청했지만 그냥 눈물만 쏟아졌다. 영영 울었다. 그러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초저녁부터 잠이 드는 내가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정신이 점점 맑아왔다. 나는 일어났다 다시 앞드려 기도했다. 저를 대신 데려가 주시옵고 저의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울었다. 간절한 기도였다. 내가 1918년 학창 시절에 김사익 형의 어린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일이 있었다. 그때 옆에서 보기에 너무도 안타까워서 현원국 형과 나는 번갈아가면서 밤새도록 어린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사망했다. 나는 그날 현원국 형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실까요?" 물었다. 현형의 대답은 "글쎄" 하면서 더 말이 없었다. 우리는 성서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던 그 기도로 알고 있다.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겐세마네 동산 기도 못지않게 심령을 다하여 간절하게 울린 것이었다. 그 후 거의 1주일 이 지난 오후 김 사장이 숙소로 찾아왔다. "선생님 배가 도착했다고 방금 전같이 왔습니다. 심한 풍랑을 만나서 몇새 동안이나 거문도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객에게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말을 끝내고 한참 숨을 돌리더니 참으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해운업에 손을 대면서 처음 당하는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래도 무사히 갔다니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오" 하면서 그를 위로했다. 다음날 되돌아온 금파호를 통하여 아내한테서 편지가 왔다. 거문도에서 거친 날씨를 피했었던 사실과 가족 모두 무사하며 제주읍 북국민학교 앞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림을 차리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임진전쟁

은 기 철(71, 남가주)

12. 정유재란 직전 정국

“다 죽여라, 다 태워라, 다 가져가라!” 난징 대학살을 감행한 일본 병사들이 받은 명령이었다. 삼 ‘다’ 정책이었다. (3 all policy: Kill all, Burn all, Loot all) 난징대학살이 일어나기 340년 전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똑같은 임무를 일본 병사들에게 주었다. 피해자는 중국 사람 대신 조선 사람이었다. 조선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죽여서 그 증표로 코를 베어 본국에 보내면 그 숫자에 따라 상을 내렸다. 도공들을 잡아갔다. 수많은 조선 사람을 나포하여 노예로 팔았다. 마을에 방화하여 잿더미로 만들었다.

일본은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조선과 명나라와 달랐다. 전 국토가 번으로 갈라져 있었다. 번은 한국의 도와 비슷하지만 독립성이 훨씬 강했다. 번은 다이묘가 다스렸다. 한국의 도지사 격이다. 그러나 다이묘는 도지사와는 달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군대와 번 주민에게는 조선의 왕에 해당하는 무서운 존재였다. 도요토미는 다이묘를 대표하는 쇼군(관백)이었다. 외국과의 전쟁을 하려면 다이묘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군대를 동원해야 했다. 왕처럼 단순한 명령으로 통하지 않았다.

1592년 도요토미는 조선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장수(다이묘)들에게 점령지를 나누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조선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이 다스릴 점령지 백성들에게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1597년 정유년에는 보이는 대로 죽이고 방화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도요토미는 조선을 초토화 시켜서 조선을 굴복 시키려는 심산이었다. 임진년에 점령에 실패했던 전라도가 중요한 목표였다.

전쟁 발발 약 일년 후 일본은 한양을 내주고 부산, 울산 지역에 후퇴하여 왜성을 건설하고 침거하고 있었다.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정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무렵인 1596년에는 일부 병력은 귀국하고 남은 병력은 고작 4만 정도였다.

1596년 9월에 명나라 사신이 도요토미에게 가지고 온 문서는 기대했던 항복문서가 아니고 책봉 문서였다. 그는 크게 분노했다. 도요토미는 자신을 지지하는 다이묘들을 설득하여 전쟁에 그들의 군대를 동원했다. 전쟁을 반대했던 그의 라이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은 그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아무 명분 없이 철군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다이묘(영주)와 사무라이들이 반발할 것이고 반전파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도요토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전쟁 상황이 일본에 불리해져서 철군이 불가피했지만 아무런 명분 없이 철군하면 도요토미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판국이었다. 도요토미는 적당한 명분을 찾아야 했다. 그는 1596년 9월부터 1597년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당사국 조선과 직접 협상을 벌였다.

조선에게 왕자를 일본으로 보내면 철군하겠다고 제의했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대신 한 명이면 족하다고 했다. 일본군은 한양을 떠날 때 선릉과 정릉을 파헤쳐서 왕의 시신을 능멸했다. 국도를 초토화하고 진주성 전투에서 무자비한 살상을 감행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

지만 왕릉을 능멸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조선은 도요토미의 요구를 물론 거절했고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과 사과를 요구했다.

명과 일본이 거짓 협상을 하는 동안 이여송과 명나라 원군은 모두 철수하고 유정과 왕필적이 지휘하는 약 1만의 병력이 팔거(대구 북구)에 주둔하고 있었다. 요동으로 철수한 이여송은 북방민족 토벌 작전 중 정찰을 나갔다가 전사했다.

한편 조선은 군사 제도를 개편하고 의병을 관군에 편입시키는 등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군사력을 재정비했다. 1596년 6월 협상이 사기극으로 드러난 이후 조선은 즉각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조선이 도요토미와의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도 명나라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당시에 명나라는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중국 역사 기록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선과 명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성에 사실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가게 한다.

2일 중국 사신이 조신(평조선; 야나가와 시게요시)과 사람을 물리치고 회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사신이 ‘조선은 우리 천조의 속국이다. 조선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문죄할 것이며,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정벌할 것이다. 언제 너희 일본에게 이처럼 강포하게 공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옳지 못한 도리이다.’ 하였다. (실록, 김영준 범법사 유튜브)

명나라 만력제는 조선의 원군 요청에 마치 자기 나라 일처럼 적극적으로 파병 준비를 지시했다. 만력제의 근무 태만으로 환관이 정무를 보면서 부패가 극심했고 보바이의 난과 임진왜란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만력제는 명분과 도리를 앞세워 조선을 도왔다.

1597년 5월 명장수 마귀는 선발대 1만 7천 병력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했다. 명 원군 본부대는 형개가 약 3만 7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왔다. 병력 규모는 작지만 아주 비교적 신속한 파병이었다. 그리고 12월부터 왜성의 일본군은 서서히 증강되고 있었다. 1597년 1월 가토 기요사마의 선봉대는 이미 울산 서생포에 도착해 있었다. 그러나 전면적인 공격은 이순신이 파면되고 원군이 수군통제사로 임명된 후인 1597년 7월에 시작되었다.

이순신이 경상도 합천에 있는 도원수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하고 있고 원군이 삼도 수군통제사로 부임하여 한산도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다. 1597년 7월 7일(음력) 가토 기요사마는 14만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또 한 번 침략하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조선 수군을 제압하여 수로를 확보하고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수송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하여 군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전이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 운주당을 짓고 거처하면서 장수들과 전술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원군은 건물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술잔치를 벌였다. 고주망태가 된 원군은 장수들이 보고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건의도 목살해 버렸다. 급기야 장수들은 건의는 커녕 아예 보고도 하지 않았고 명령을 해도 잘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원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

군은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하고 그동안 전화에서 제외되었던 전라도가 초토화되었다.

13. 이원군의 칠천량 해전과 이순신 수군 재건

경상 좌수사 원균과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개전 초기에 같이 싸웠다. 해전을 거듭하면서 이순신과 원균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다. 이순신은 원균이 자신의 공격을 과장하여 보고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이순신과 원균의 나쁜 사이는 동인과 서인의 싸움으로 번졌다. 이순신을 경외했던 선조는 원균 비호파의 손을 들어 주어 이순신을 파면(백의종군) 했다.

이순신이 물러나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이곳에는 전라 우수사 이억기, 경상 우수사 배설, 충청 수사 최호가 도합 2백 척에 가까운 전함을 가지고 한산도에 집결하고 있었다. 한산도의 운주당은 이순신이 참모들과 작전을 상의하던 건물이었다. 말하자면 해군 작전실이였다. 원균은 이 건물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매일 술 파티를 즐겼다. 부하 장수들과 전투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다. 건의도 보고도 모두 무시했다.

1597년 1월부터 일본군은 배를 타고 부산과 울산 왜성에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거제도 동쪽은 일본군이 이미 상륙하여 점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의 보급선과 군함의 왕래도 빈번했다. 거제도 서쪽에는 칠천도가 있고 칠천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산도이다.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의 바다를 칠천량이라고 하고 칠천량을 지나서 남쪽으로 가면 한산도이다.

비변사는 요즈음의 국가 안전위원회(NSC) 또는 비상시 최고기관에 해당한다. 비변사는 원균에게 남해상에 지나가는 일본 배를 자주 나아가 습격하고 빠지라는 작전명령을 내린다. 일본군의 보급로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원균은 매일 술만 마시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육지의 일본군을 지상군이 공격하고 수군은 바다에서 공격하자는 수륙 양면 작전을 주장했다. 사실상 부산포와 울산에 일본군이 집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불리 조선 수군이 부산에 있는 일본 수군을 공격하려다가 수륙 양면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도원수 권율도 원균의 수륙양면 작전에 반대했다.

권율, 원균을 불러 곤장을 치다.

비변사와 도원수 권율의 압력에 원균은 1597년 6월 18일 전선 100여 척을 이끌고 부산포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안골포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려 적선 2척을 나포했지만 보성 군수 안흥국이 전사하는 등 일본군의 반격에 못 이겨 한산도로 돌아왔다.

7월 7일 원균은 전라 우수사 이억기, 경상 우수사 배설, 충청 수사 최호와 함께 전선 169척을 이끌고 총출동하여 부산포 근처 대다포에 정박했다. 7월 8일 일본 전함과 첫 교전에서 적함 8척을 침몰 시켰다. 다음날 서생포(울산 남쪽)에서 일본 수군이 반격했다. 아군 판옥선 20척을 잃었다. 임란 발발 이후 조선 수군 최대의 피해였다.



원균은 겁을 먹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받은 도원수 권율은 7월 11일 원균을 곤양으로 소환하여 곤장을 쳤다. 7월 14일 화가 난 원균은 부산포 앞바다로 다시 진출했다. 가는 도중 일본군 수송선단을 발견했다. 도망가는 일본 선박

을 추격했다. 풍량이 심했다. 판옥선은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12척이 파도에 밀려 실종되었다. 5척은 도모포에 7척은 서생포에 표류하여 일본군에게 전멸했다.

원균은 전군 퇴각을 명했다. 병사들은 하루 종일 높은 파도에 시달리며 노를 저어야 했다. 멀미하는 병사들도 많았다, 마실 물도 부족했다. 가덕도에 도착했다. 병사들이 우르르 우물을 향해서 달려갔다. 숨어 있던 일본군이 기습했다. 400명이 전멸했다. 원균은 자기 부하들이 도륙당하는 것을 멍청히 보고만 있었다.

7월 15일 원균은 거제도 동북쪽 영등포에 정박하려 했다. 비바람이 심해서 정박할 수가 없었다. 칠천량으로 옮겼다. 칠천도와 거제도 사이의 아주 좁은 해협이었다. 풍량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함포 사격으로 해전을 치르는 조선 수군에게는 불리하고 육박전에 능한 일본군에게 유리한 지역이었다.

조선 수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던 일본군은 조선 수군과 일전을 할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전 병력을 칠천량으로 집결 시켰다. 도도 다카토라,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수군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육군이 주력 부대였다.

조선 수군은 지쳐 빠져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적선 접근에 대비해서 망보는 병사도 없었다. 적군의 함포 소리에 조선 수군은 혼비백산했다. 7월 15일 밤 열시 조선 수군 군량선에 불이 났다. 7월 16일 새벽 4시 일본 수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다. 무려 1000척의 일본 전선이 투입되었다. 일본 배들은 조선 수군이 자고 있는 동안에 조선 전함 사이사이로 들어와 있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판옥선 위로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렸다.

전라 우수사 이억기와 충청 수사 최호도 자신의 배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원균은 퇴각 명령을 내렸다. 경상 우수사 배설은 원균에게 한산도 지휘부로 퇴각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원균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한산도로 미리 퇴각하여 군량미를 모두 태우고 서쪽으로 향했다. 그가 구한 12척은 명량 해전의 주력 함대가 되었다. 원균과 지휘부는 진해만으로 향했다. 원균은 고성현 춘원포에 도착하여 나무 밑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었다. 그를 발견한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설이 구한 12척을 제외한 조선 수군의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했다.



이순신 조선수군 재건에 나서다.

조선 수군을 제압한 일본군은 전쟁 초기부터의 숙원이었던 호남 공략에 나섰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섬진강을 따라 남원으로 향했다. 호남의 도성 전주가 목표였다.

1597년 7월 18일 이순신은 옛 부하들로부터 패전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끼던 부하 장수들과 전라 우수사 이억기, 충청 수사 최호도 전사했다고 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했던 전함이 모두 침몰했다고 했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원균을 재촉하여 출전하게 했던 권율은 무척 당황했다. 이제 믿을만한 사람은 이순신밖에 없었다. 권율이 이순신을 찾아왔다. 난감해 하는 권율을 보고 이순신이 자진해서 해안 지역에 가서 상황을 직접 보고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고 나섰다. 권율은 무척 기뻐했다. 그는 즉각 선조에게 이순신의 복권을 건의했다. 이순신은 측근 10여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당시에 <다음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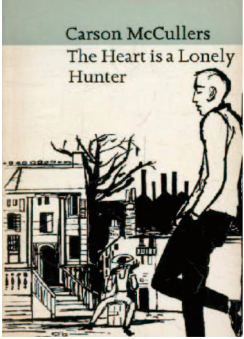
Carson Mc Cullers는 미국의 근 현대 작가로서 손꼽히는 여류 작가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50세로써 인생을 끝내지만, 사랑이라는 문제를 토대 삼아 적지 않은 작품을 남기고 갔다.

Carson은 작가의 이름을 결혼한 남편의 이름을 줄곧 쓰면서 자신의 이름은 내 세우지 않으면서 여성 작가로서의 위상을 펼쳤다.

내가 카슨을 좋아하는 이유는 Feminism이나 Me too Phenomena가 시작하기 전 1930년대에 여성/남성의 구별을 뛰어넘은 사랑과 낭만의 필요성을 강조한 작품을 남긴 것에 대한 존경심에서이다. 과연 동양인으로 그런 생각이나 상상력을 펼쳐 내는 작가는 왜 없나 하는 문화의 처절한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

카슨은 1917년에 Columbus, Georgia에서 태어나고 뉴욕시 북쪽에 위치한 허드슨 강가 Nyack이라는 마을-화가 Edward Hopper가 살았고, 유명한 근대 작가 Tony Morrison과, 나도 20여년 살던 미려하고 매력적인 고장-에서 1967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

그녀는 1937년, 20세 때에 미군에 입대했었던 James Reeves McCullens, Jr.와 결혼하고, 아이는 없고 1941년에 이혼했다가 1945년에 전 남편 Reeves와 재혼을 했으나 행복하지 못하고, 남편은 동성애를 시도했으나 실패, 카슨과 함께 자살하자고 했으나, 아내 카슨이 거부하자, 자기 혼자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였다. 그 후 카슨도 자살시도를 1948년에 했으나 실패, 문학으로 일관하여 일생을 마감했다.



카슨이 남긴 작품으로 유명한 것은 19세 때 데뷔작 "The Heart is a Lonely Hunter. (사랑은 외로운 사냥꾼이다)"로 시작하여 5편의 소설, 2편의 연극, 그리고, 금빛 눈의 어린 추억들, 은주막의 노래 등 24편의 단편들을 남겼다.

그녀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1930-40년 대의 거목들, Earnest Hemingway, John Steinbeck, William Falkner 등에게 도전한 여류작가로 그녀의 대표작의 하나인 "한 나무, 한 바위, 한 가닥 구

사랑의 윤리, 어제와 오늘

름"은 당시 최고의 창작상, Harper's Bazaar O'Henry Award을 받았다.

왜 내가 카슨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녀의 문장이 미국의 전통적인 미국 남부의 낭만과 섬세한 전통적인 필체가 좋, 그뿐 아니라 병으로 고생한 자기 인생을 사랑으로서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 친 데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려서 류머티성 심장병을 앓고 24세 때 뇌출혈을 겪고, 팔 다리의 마비를 다스려야 하는 비극적 인생을 경험하였다. 그녀는 항상 심장병과 마비된 팔다리를 끌면서 홀로 살면서 글을 써가며 사랑을 찾는 삶을 영위하였다.

내가 좋아하는 "한 나무, 한 바위, 한 가닥 구름" 단편 일부를 소개한다.

1942년 2차 대전이 창궐하던 때에 신문과는 어린 청소년이 새벽 5시경에 어느 24시간 여는 주막에 들어왔다. 거기에 군인, 경찰, 소방관, 그리고 거지들이 북적이었다. 그 소년이 나가려는 데, 술취한 60대 사나이가 그 소년을 보고, 말했다.

"내 손자 뺄 되는 녀석아,"라고 부르니 "어떤 신문을 드릴까요?" 그 소년은 대답하였다.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둥근 눈을 가진 소년이 다가오자, 이 중년 사나이는 한 손을 소년의 어깨 위에, 또 한 손은 턱을 추켜 올리며 소년의 얼굴을 좌우로 가볍게 돌렸다. 소년은 겁에 질려 "아저씨, 왜 이러세요?" 고함을 질렀다.

카페에 있는 손님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사나이는 침착하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이 떨어지자 이 카페는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은 "1001일 밤의 야화," 아니면 "옛 뱃사공의 사랑의 노래" 같은 낭만이 숨어 있다.

카슨 맥칼러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 간다.

이 카페의 단골손님인 이 사나이는 젊었을 때 철도회사의 종군받는 기술자였다고 한다. 중년까지 열심히 일하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내가 51세가 되던 해에 한 여인을 만

김 해 암 (58, 대뉴욕)

났다, 그녀는 그 해 30세였고, 그 주유소에서 만난 여인과 3일 만에 결혼을 하게 이르렀다. 그 상황을 짐작할 만 한가?

나의 모든 일이 이 여인을 에워싸게 되었고, 모든 일이 척척 정리 되어가고 그녀는 차분히 집안일 처리를 해 나갔다."

그러나 2년 후에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도망쳐 버렸고, 이 사나이는 절망에 빠졌다. 이 사나이는 모든 일을 버리고 미국 내를 여행하며 아내를 찾았지만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 후 술에 빠져 절망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다. 그것을 이 사나이는 "과학적인 발견이다."라고 말한다. 즉 "사랑의 과학"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사나이는 신문과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나는 이제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어, 지나간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내가 거리에 넘나드는 인과 속을 걸을 때나, 아름다운 등불이 다가올 때나,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거나, 또는 길가에서 여행객을 만날 때에 사랑을 느낀다. 모든 것에 말이다. 알겠어, 이 녀석아!, 아무나 말이다, 모든 사람들, 이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이 내가 발견한 사랑의 과학이야, 무엇을 뜻하는지 알만하니?"

그는 남자들이 첫사랑에 빠질 때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느냐고 묻고 스스로 답변을 한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빛으로 환해진 진실이야" 말을 이어 간다.

"한 여인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길을 남자들은 걸어 들어간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지구에서 가장 성스럽고 또 위험한 경험을 하게 된다.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알겠나?"

소년은 "네, 알만 합니다. 나지막 하게 대답한다.

"남자들은 사랑을 거꾸로 시작하는 듯해, 그들은 클라이맥스로 시작한다.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할 수 있어? 너는 남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만하니?"

이 중년 사나이는 소년의 가족 잠바의

목덜미를 정답게 흔들며, 소년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말을 잇는다.

"야, 사랑스러운 놈아, 이제 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만하지!"

소년은 움츠리며 조용해진다. 사나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소년에게 귀에 속삭이듯 말한다. "한 나무, 한 바위, 한 가닥 구름 등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해!" 이 사나이는 그 소년에게 신문값을 쥐어주며 말을 끊는다.

정신과 의사로 나는 이런 중년의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상담하고 치료해 왔다. 맥칼러스는 남자들에게 향해 말하지만, 여자들도 똑같은 인생 경험을 한다. 사랑의 문제는 인류의 시작부터, 아담과 이브의 창조 신화 때부터 내려오는 문제였다. 인류의 모든 문화가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아직도 "에리스의 미국 땅속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 왜 사랑의 문제가 그토록 다루기 힘들고, 아리송하고 또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나? 인간 사회는 남녀를 갈라놓고 살아왔다. 수렵 시대로부터 농경 사회,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화는 남녀를 갈라 놓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왜? 편리하고, 당연하다는 보편타당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70-80년 전까지도 히스테리 증상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여성의 처녀성을 결혼의 조건으로 중요시했었다. 성도착증은 많았지만 동성애 현상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정신 치료와 정신 분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20세기 말엽에는 사랑을 일종의 전위 현상으로 설명하고 히피 문화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문명사회는 주장했으나, 에이즈 병의 등장으로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성행위에 찬물을 덮어 버렸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세상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올까? 생각해 보자.

나는 미국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와서 각 문화권의 경험과 통찰력을 글로 발표하는 작품과 풍경을 즐긴다. 나는 왜 인류 문화가 감정의 통제와 자유분방한 낭만을 반복하는 문명의 역사를 흥미롭게 관찰한다.

나는 조만 간에 제2의 낭만 시대가 다가온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글 독자 중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서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난제를 연구함은 정신과 의사나 문학이나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영역이 되어서는 동굴 끝에 서광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김해암, hak2001@med.cornell.edu

<전면에서 계속>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이 감시하고 있어서 조선군 지휘본부가 있던 합천에 이순신도 종군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의 7월 21일 자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맑다. ...곤양군에 이르렀더니 군수 이천주도 고을에 있고 백성들도 고을에 많이 남아 있어서... 벼를 거두기도 하고 밀보리 밭을 갈기도 하였다. 점심을 먹고 노랑에 이르렀더니 거제 현령 안위와 영등포(거제도) 만호 조계종 등 10여 명이 와서 통곡하였다. 또 피해 나온 군사와 백성들도 울부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경상 수사는 도망가고 보이지 않았다. 우후 이의득이 찾아왔기에 패했던 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모든 사람이 울며 말하기를 "대장 원군이 적을 보자 먼저 물으로 달아나고 여러 장수들도 모두 그를 따라 물으로 달아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대장의 잘못된 말로 다할 수가 없고 그 살점이라도 뜯어 먹고 싶다고들 하였다. 거제의 배 위에서 자면서 거제 현령과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금도 눈을 붙이지 못하여 눈병을 얻었다. *경상 수사는 배설이다.

조선 수군은 모두 패전의 원인을 원군의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선조는 도원수와 하늘의 잘못으로 치부한다. 1597년 7월 22일 선조실록은 선조의 반응

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상(감)이 말하기를 "한산을 고수하여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형세를 만들어야 했었는데 출병을 독촉하여 이와 같은 패배를 초래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실로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일은 도원수 권율이 독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배가 있었던 것이다."

1597년 8월 3일 이순신은 진주 수곡에서 삼도 수군통제사 제수를 받는다. 말하자면 해군참모총장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이순신에게 종2품을 주지 않고 정3품을 준다. 삼군 수군통제사가 되려면 종2품이어야 하는 데 그보다 못한 정3품을 내린 것이다. 휘하 장수들이 종3품이어서 통솔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계급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개의치 않았다.

이순신은 조선 수군 재건에 나선다. 그리고 전라도 해남 쪽으로 향했다. 조선 수군이 전라도 쪽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이순신은 칠천량 해전 직후 배설을 만나서 그가 구한 12척의 판옥선이 해남 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 수군이 서쪽으로 이동할 것은 자명했다. 이순신은 일본 전함이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야 했다. 구례에 도착하여 현감 이원춘과 전력

을 논의하고 수군 출정식을 가졌다. 곡성에 이르니 백성들이 통곡하며 이순신을 맞이했다. 여기서 거북선 돌격 대장 이기남을 만났다. 이순신은 무척 반가워했다. 이 무렵에는 고니시가 섬진강을 따라 남원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다행히 고니시는 이순신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이순신은 많은 군량미를 기대하고 순천으로 향했다. 그러나 순천은 이미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텅텅 비어 있었다. 해희 승병장을 만나서 승병들이 이순신과 합류했다. 보성에 도착했다. 천만다행이었다. 많은 군량미가 비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옛 장수였던 정운, 송희정, 최다성, 안위, 이몽구와 회유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기쁨도 잠깐이었다. 선전관이 도착했다. 선조가 내린 교지는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내용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필사적으로 수군을 다시 만들어 일본 수군이 한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데 수군을 포기하라니 한심한 상감이었다. 화를 누르고 이순신은 붓을 들었다. 이순신은 죽을 각오를 하고 상소한다.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있으니 사력을 다해 싸워야만 오히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전선의 수가 적으나 미령한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저들이 감히 업수이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에 대한 불복이었다. 다행히 선조는 이순신을 처벌하지 않았다.

8월 17일 이순신은 장흥 군영 구미에 이른다. 여기서 배설을 만나 그가 가지고 있는 판옥선 12척이 있는 회령포로 안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배설은 뱃멀미를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순신은 직접 회령포로 가서 12척을 찾았다. 이순신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배설은 칠천량 해전 직후 이순신을 만났다.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과 경상 우수사의 만남이었다. 배설은 이순신에게 불손했다. 명량 해전에서 탈영한 배설은 정유재란 일 년 후 잡혀서 처형되었다.

8월 24일에서 28일, 이순신은 해남 어란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일본 전함과 소규모의 해전이 있었다. 이순신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들을 물리쳤다. 8월 29일 이순신은 진도 벽파전에 진을 친다. 이곳에서도 일본 수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쉽게 격퇴할 수 있었다. 김억추가 판옥선 1척을 대동하고 합류했다. 이순신은 9월 14일 명량 해전 직전까지 판옥선 13척을 가지고 이곳에 진을 치고 일본 수군을 몰돌목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세기의 일전 명량 해전(다음호에 게재)이 벌어진다.

참고: 1. 유튜브: 황현필, 임진왜란 53
2. 나무위키 칠천량 해전
- 다음호에 명량 해전이 계속됩니다.

